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金斗和*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7. 대인관계 |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 1. 인적사항 | 9. 가치관 |
| 2. 대학생활 | 10. 학생생활연구소 상담 |
| 3. 대학선택 | III. 결과 분석 |
| 4. 학부(과)선택 | IV. 요약 및 제언 |
| 5. 교수와의 관계 | 참고 문헌 |
| 6. 고교생활 | Abstract |

I. 머리말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학부(과) 선택의 동기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특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00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2000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각 학부(과)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전체 신입생 2,813명(전년도 신입생 남녀별 구성비를 비교하면, 남학생이 60.0% → 57.7%로 2000학년도 보다 감소한 반면에, 여학생은 40.3% → 42.3%로 증가하였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교수

과, 1,978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전체 신입생의 70.3%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반응자수 (%)	427 (21.6)	203 (10.3)	446 (22.5)	142 (7.2)	101 (5.1)	102 (5.2)	221 (11.2)	311 (15.7)	25 (1.3)	1061 (53.6)	917 (46.4)	1978 (100.0)

신입생의 출생년도별 빈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81년에 출생한 학생이 1,528명(77.2%), '82년 이후 출생학생이 264명(13.3%), 그 다음 '80년 출생학생이 121명(6.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연령은 3.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순위 경향은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 '81년도와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이 89.8%, 여학생인 경우 91.5%로 여학생이 높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해 보면, 만18세 이하인 경우, 89.0% → 90.5%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만19세인 경우에는 6.4% → 3.2%로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표 2> 출생년도별 분포

<단위 : 명(%)>

출생년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74년 이전	1 (0.2)	10 (4.9)	-	1 (0.7)	-	-	7 (3.2)	1 (0.3)	2 (8.0)	19 (1.8)	3 (0.3)	22 (1.1)
75년	-	1 (0.5)	-	1 (0.7)	-	-	-	-	-	2 (0.2)	-	2 (0.1)
76년	1 (0.2)	-	-	-	-	-	-	-	-	-	1 (0.1)	1 (0.1)
77년	1 (0.2)	3 (1.5)	-	1 (0.7)	2 (2.0)	-	-	1 (0.3)	-	4 (0.4)	4 (0.4)	8 (0.4)
78년	-	1 (0.5)	-	2 (1.4)	1 (1.0)	-	-	1 (0.3)	1 (4.0)	2 (0.2)	4 (0.4)	6 (0.3)
79년	3 (0.7)	3 (1.5)	-	7 (4.9)	2 (2.0)	1 (1.0)	7 (3.2)	1 (0.3)	-	13 (1.2)	11 (1.2)	24 (1.2)
80년	32 (7.5)	8 (3.9)	29 (6.5)	24 (16.9)	3 (3.0)	8 (7.8)	5 (2.3)	11 (3.5)	1 (4.0)	66 (6.2)	55 (6.0)	121 (6.1)

구분 학년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81년	355 (83.1)	147 (72.4)	403 (90.4)	83 (58.5)	80 (79.2)	80 (78.4)	134 (60.6)	231 (74.3)	15 (60.0)	804 (75.8)	724 (79.0)	1528 (77.2)
82년 이후	34 (8.0)	30 (14.8)	14 (3.1)	23 (16.2)	13 (12.9)	13 (12.7)	67 (30.3)	64 (20.6)	6 (24.0)	149 (14.0)	115 (12.5)	264 (13.3)
무응답							1 (0.5)	1 (0.3)		2 (0.2)		2 (0.1)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99학년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동일하다.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사항 : 생활근거지, 입학 후 거주지, 재수경험 유형,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직업, 가족수, 가족의 월수입, 가정분위기, 부모에 대한 느낌, 부모의 관심도
- 2) 대학생활 : 재학 중 학비부담자, 장학금 필요여부, 아르바이트 희망여부와 이유,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생활 중 하고 싶은 일, 서어클활동 희망분야,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
- 3) 대학선택 : 본교의 이미지, 본교에 대한 인지도, 본교에 지원한 이유, 본교 지원시 정보 수집경로, 본교에 입학한 자긍심
- 4) 학부(과) 선택 : 학부(과) 지망동기,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학부(과) 선택요인, 지망학부(과) 선택시 정보 수집경로, 학부(과) 선택시기, 지망학부(과) 인식도, 장래 희망직종, 전공공부의 계속적 수학여부
- 5) 교수와의 관계 : 교수에 대한 기대
- 6) 고교생활 : 과외지도 경험유무 및 형태, 고교생활의 만족도
- 7) 대인관계 : 대인관계 정도, 이성친구 유무, 개인문제 의논대상,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 제주도 문제
- 9) 가 치 관 : 성공의 조건
- 10) 학생생활연구소 상담 : 상담 희망여부, 상담내용 분야

이상과 같이 10개 영역 4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분석

1. 인적 배경

1) 학생의 생활근거지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다음 <표 3>과 같다. '제주시'가 58.3%, '서귀포시' 16.2%, 그 외 '읍·면' 단위가 19.8%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5.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시'인 경우 56.9% → 58.3%(남 : 53.8% → 54.1%, 여 : 61.0% → 63.1%)로 다소 증가하였고, '타 시·도'인 경우는 9.6% → 5.9%(남 : 13.0% → 6.6%, 여 : 5.0% → 4.4%)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타 시·도'에 생활근거지를 둔 신입생들의 분포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20.0%), 해양대(14.7%), 자연대(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신입생의 생활근거지

<단위 : 명(%)>

생활근거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주시		229 (53.6)	124 (61.1)	291 (65.2)	88 (62.0)	68 (67.3)	48 (47.1)	97 (44.9)	193 (62.1)	15 (60.0)	574 (54.1)	579 (63.1)	1153 (58.3)
서귀포시		118 (27.6)	24 (11.8)	71 (15.9)	22 (15.5)	18 (17.8)	12 (11.8)	21 (9.5)	33 (10.6)	2 (8.0)	156 (14.7)	165 (18.0)	321 (16.2)
애월읍		1 (0.2)	7 (3.4)	6 (1.3)	5 (3.5)	2 (2.0)	-	7 (3.2)	15 (4.8)	-	28 (2.6)	15 (1.6)	43 (2.2)
한림읍		11 (2.6)	4 (2.0)	-	-	1 (1.0)	7 (6.9)	39 (17.6)	14 (4.5)	1 (4.0)	62 (5.8)	15 (1.6)	77 (3.9)
한경면		1 (0.2)	1 (0.5)	-	-	1 (1.0)	-	7 (3.2)	-	-	9 (0.8)	1 (0.1)	10 (0.5)
대정읍		4 (0.9)	4 (2.0)	-	1 (0.7)	1 (1.0)	5 (4.9)	2 (0.9)	6 (1.9)	-	11 (1.0)	12 (1.3)	23 (1.2)
안덕면		1 (0.2)	6 (3.0)	1 (0.2)	5 (3.5)	-	-	-	5 (1.6)	1 (4.0)	10 (0.9)	9 (1.0)	19 (1.0)
남원읍		17 (4.0)	11 (5.4)	12 (2.7)	8 (5.6)	5 (5.0)	-	7 (3.2)	7 (2.3)	-	43 (4.1)	24 (2.6)	67 (3.4)
표선면		-	1 (0.5)	4 (0.9)	1 (0.7)	-	1 (1.0)	-	8 (2.6)	-	10 (0.9)	5 (0.5)	15 (0.8)
성산읍		2 (0.5)	2 (1.0)	8 (1.8)	-	-	1 (1.0)	2 (0.9)	4 (1.3)	-	8 (0.8)	11 (1.2)	19 (1.0)
구좌읍		18 (4.2)	6 (3.0)	17 (3.8)	-	1 (1.0)	8 (7.8)	3 (1.4)	9 (2.9)	-	44 (4.1)	18 (2.0)	62 (3.1)

영향근거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조 천 읍	5 (1.2)	-	-	-	-	-	-	-	-	33 (3.1)	20 (2.2)	53 (2.7)
우 도 면	-	-	-	-	-	-	-	-	-	-	-	-
추 자 면	-	5 (2.5)	10 (2.2)	6 (4.2)	2 (2.0)	5 (4.9)	8 (3.6)	11 (3.5)	1 (4.0)	-	-	-
서 울	-	1 (0.5)	-	-	-	-	8 (3.6)	-	1 (4.0)	4 (0.4)	6 (0.7)	10 (0.5)
부 산	-	2 (1.0)	8 (1.8)	2 (1.4)	1 (1.0)	5 (4.9)	3 (1.4)	-	-	11 (1.0)	10 (1.1)	21 (1.1)
대 구	1 (0.2)	-	1 (0.2)	1 (0.7)	-	-	-	-	1 (4.0)	3 (0.3)	1 (0.1)	4 (0.2)
대 전	-	-	2 (0.4)	-	-	-	-	-	-	2 (0.2)	-	2 (0.1)
인 천	-	2 (1.0)	-	-	-	9 (8.8)	-	-	-	7 (0.7)	4 (0.4)	11 (0.6)
광 주	-	-	3 (0.7)	-	-	-	2 (0.9)	1 (0.3)	1 (4.0)	2 (0.2)	5 (0.5)	7 (0.4)
경 기	1 (0.2)	1 (0.5)	-	-	1 (1.0)	-	3 (1.4)	1 (0.3)	-	4 (0.4)	3 (0.3)	7 (0.4)
강 원	1 (0.2)	-	-	-	-	-	-	1 (0.3)	-	-	2 (0.2)	2 (0.1)
경 북	-	-	3 (0.7)	-	-	-	2 (0.9)	-	-	5 (0.5)	-	5 (0.3)
경 남	15 (3.5)	1 (0.5)	5 (1.1)	1 (0.7)	-	1 (1.0)	-	2 (0.6)	-	20 (1.9)	5 (0.5)	25 (1.3)
충 북	-	-	-	-	-	-	-	-	-	-	-	-
충 남	-	-	-	-	-	-	-	-	-	-	-	-
전 북	1 (0.2)	-	2 (0.4)	-	-	-	2 (0.9)	-	-	-	5 (0.5)	5 (0.3)
전 남	1 (0.2)	-	2 (0.4)	2 (1.4)	-	-	4 (1.8)	1 (0.3)	2 (8.0)	11 (1.0)	1 (0.1)	12 (0.6)
해 외	-	-	-	-	-	-	2 (0.9)	-	-	2 (0.2)	-	2 (0.1)
무 응 답	-	1 (0.5)	-	-	-	-	2 (0.9)	1 (0.3)	-	2 (0.2)	1 (0.1)	2 (0.1)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

신입생들의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본가'가 68.4%로 가장 많고, '자취'가 21.1%, '기숙사'가 4.1%, '친척 및 친지'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본가' (65.9% → 68.4%), '자취' (20.8% → 21.1%)인 경우는 증가하였고, '기숙사' (5.8% → 4.1%), '친척 및 친지' (4.5% → 3.8%)인 경우에는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대학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숙사'인 경우는 해양대, 자연대생들이 타 대학생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남학생이 6.0%(64명)로서 여학생의 1.9%(17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

(단위 : 명(%))

희망/거주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가	296 (69.3)	139 (68.5)	308 (69.1)	99 (69.7)	81 (80.2)	68 (65.7)	117 (52.9)	227 (73.0)	17 (68.0)	749 (70.6)	603 (65.8)	1352 (68.4)
친척 및 친지	18 (4.2)	10 (4.9)	13 (2.9)	6 (4.2)	4 (4.0)	1 (1.0)	10 (4.5)	13 (4.2)	1 (4.0)	43 (4.1)	33 (3.6)	76 (3.8)
자 취	94 (22.0)	40 (19.7)	97 (21.7)	28 (19.7)	13 (12.9)	17 (16.7)	63 (28.5)	62 (19.9)	4 (16.0)	170 (16.0)	248 (27.0)	418 (21.1)
하 숙	2 (0.5)	6 (3.0)	18 (4.0)	5 (3.5)	1 (1.0)	-	11 (5.0)	1 (0.3)	2 (8.0)	34 (3.2)	12 (1.3)	46 (2.3)
기 숙 사	17 (4.0)	7 (3.4)	10 (2.2)	4 (2.8)	2 (2.0)	16 (15.7)	17 (7.7)	7 (2.3)	1 (4.0)	64 (6.0)	17 (1.9)	81 (4.1)
무 응 답		1 (0.5)		1 (0.7)	2 (2.0)		2 (0.9)			2 (0.2)	4 (0.4)	6 (0.3)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재수경험 유형

재수경험 여부에 대해 신입생들의 90.1%(전년도 89.4%)는 '없다'라고 응답하여 해마다 재수한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학생 중에는 7.8%가 '1년 재수'를 하였고, '2년 이상 재수'한 신입생은 1.2%였으며, '검정고시' 입학생은 0.3%(5명)였다. 대학별로 보면, '1년 재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사범대학이 22.0%, '2년 재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자연대 4.1%, '3년 이상 재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의과대생으로 4.0%(1명)이나 그 수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재수한 경험 유형

〈단위 : 명(%)〉

재수경험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381 (89.2)	183 (90.6)	415 (93.0)	106 (75.2)	92 (92.9)	93 (91.2)	195 (89.0)	292 (93.9)	20 (80.0)	952 (89.9)	825 (90.4)	1777 (90.1)
1	년	41 (9.6)	14 (6.9)	31 (7.0)	31 (22.0)	4 (4.0)	5 (4.9)	10 (4.6)	16 (5.1)	2 (8.0)	82 (7.7)	72 (7.9)	154 (7.8)
2	년	4 (0.9)	2 (1.0)	-	1 (0.7)	1 (1.0)	4 (3.9)	9 (4.1)	2 (0.6)	1 (4.0)	11 (1.0)	13 (1.4)	24 (1.2)
3년 이상		1 (0.2)	1 (0.5)	-	3 (2.1)	1 (1.0)	-	5 (2.3)	-	1 (4.0)	9 (0.8)	3 (0.3)	12 (0.6)
검정고시		-	2 (1.0)	-	-	1 (1.0)	-	-	1 (0.3)	1 (4.0)	5 (0.5)	-	5 (0.3)
계		427 (100.0)	202 (100.0)	446 (100.0)	141 (100.0)	99 (100.0)	102 (100.0)	219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면, 보호자가 '아버지'인 경우 88.7%, '어머니' 8.7%, '형·누나, 친척, 기타' 0.5%로서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가 '아버지'는 3.0%(85.7% → 88.7%), '친척'은 0.1%(0.4% → 0.5%)가 늘어난 반면, '어머니'는 2.4%(11.1% → 8.7%), '조부모' 0.5%(0.8% → 0.3%)씩 조금 줄었다.

〈표 1-4〉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관계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372 (87.1)	184 (90.6)	399 (89.5)	128 (90.1)	93 (93.0)	84 (82.4)	195 (88.2)	279 (89.7)	20 (80.0)	918 (87.9)	836 (91.3)	1754 (88.7)
모		49 (11.5)	13 (6.4)	33 (7.4)	13 (9.2)	6 (6.0)	18 (17.6)	12 (5.4)	23 (7.4)	5 (20.0)	108 (10.3)	64 (7.0)	172 (8.7)
형·누나		1 (0.2)	3 (1.5)	-	-	-	-	1 (0.5)	4 (1.3)	-	6 (0.6)	3 (0.3)	9 (0.5)
조 부모		-	-	4 (0.9)	-	1 (1.0)	-	-	1 (0.3)	-	6 (0.6)	-	6 (0.3)
친 척		-	-	8 (1.8)	1 (0.7)	-	-	-	1 (0.3)	-	1 (0.1)	9 (1.0)	10 (0.5)
기 타		1 (0.2)	3 (1.5)	2 (0.4)	-	-	-	3 (1.4)	-	-	5 (0.5)	4 (0.4)	9 (0.5)
무 응답		4 (0.9)				1 (1.0)		10 (4.5)	3 (1.0)		17 (1.6)	1 (0.1)	18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5)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86.3%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신입생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어머니만 살아 계신 경우'가 5.7%, '아버지만 살아 계신 경우'가 1.7%이다. 한편 '양친이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도 5.3%(105명)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5.1% → 5.3%)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명(%)〉

생존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모두 사망	-	1 (0.5)	-	-	2 (2.0)	-	1 (0.5)	3 (1.0)	-	6 (0.6)	1 (0.1)	7 (0.4)
모 사망	8 (1.9)	1 (0.5)	10 (2.2)	1 (0.7)	-	-	14 (6.3)	-	-	31 (2.9)	3 (0.3)	34 (1.7)
부 사망	42 (9.8)	9 (4.4)	22 (4.9)	8 (5.6)	4 (4.1)	4 (3.9)	2 (0.9)	18 (5.8)	3 (12.0)	74 (7.0)	38 (4.1)	112 (5.7)
양친 생존 동거	362 (84.8)	178 (87.7)	388 (87.0)	123 (86.6)	86 (85.1)	86 (84.3)	193 (87.3)	273 (88.6)	19 (76.0)	877 (82.7)	831 (90.6)	1708 (86.3)
양친 생존 별거 중	3 (0.7)	7 (3.4)	15 (3.4)	5 (3.5)	1 (1.0)	-	-	7 (2.3)	1 (4.0)	21 (2.0)	18 (2.0)	39 (2.0)
양친 생존 이혼	11 (2.6)	7 (3.4)	9 (2.0)	4 (2.8)	5 (5.1)	11 (10.8)	11 (5.0)	7 (2.3)	1 (4.0)	45 (4.2)	21 (2.3)	66 (3.3)
무응답	1 (0.2)		2 (0.4)	1 (0.7)	3 (3.0)	1 (1.0)		3 (1.0)	1 (4.0)	7 (0.7)	5 (0.5)	12 (0.6)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6) 학생 보호자의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을 보면, '무학~고학' 1.2%, '대학원졸 이상' 5.4%, '초졸~초중퇴' 8.5%, '중졸~중중퇴' 12.5%, '대졸~대중퇴' 21.3%, '고졸~고중퇴' 50.9%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의 학력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감소(76.0% → 73.1%)한 반면, 대학 및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자는 증가(22.9% → 26.7%)하여 신입생들의 학부모 학력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학생 보호자의 학력

(단위 : 명(%))

보호자 학력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학~고학		1 (0.2)	-	9 (2.0)	1 (0.7)	2 (2.0)	-	6 (2.7)	4 (1.3)	1 (4.0)	13 (1.2)	11 (1.2)	24 (1.2)
국졸~국중퇴		29 (6.8)	13 (6.4)	32 (7.2)	17 (12.0)	6 (5.9)	12 (11.8)	29 (13.1)	29 (9.3)	1 (4.0)	115 (10.8)	53 (5.8)	168 (8.5)
중졸~중중퇴		27 (6.3)	28 (13.8)	40 (9.0)	21 (14.8)	11 (10.9)	12 (11.8)	39 (17.6)	65 (20.9)	4 (16.0)	139 (13.1)	108 (11.8)	247 (12.5)
고졸~고중퇴		223 (52.2)	96 (47.3)	215 (48.2)	74 (52.1)	57 (56.4)	58 (56.9)	108 (48.9)	161 (51.8)	14 (56.0)	532 (50.1)	474 (51.7)	1006 (50.9)
대졸~대중퇴		127 (29.7)	49 (24.1)	116 (26.0)	25 (17.6)	21 (20.8)	18 (17.6)	17 (7.7)	44 (14.1)	4 (16.0)	213 (20.1)	208 (22.7)	421 (21.3)
대학원졸 이상		20 (4.7)	14 (6.9)	33 (7.4)	4 (2.8)	4 (4.0)	2 (2.0)	22 (10.0)	6 (1.9)	1 (4.0)	44 (4.1)	62 (6.8)	106 (5.4)
무응답			3 (1.5)	1 (0.2)					2 (0.6)		5 (0.5)	1 (0.1)	6 (0.3)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7) 학생 보호자의 직업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2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 15.7%, '상업' 12.9%, '행정사무직' 11.5%, '전문기술직' 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산업', '어업', '수산업'은 3.0%로 나타나 제주의 특성을 가진 직업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또한 '농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3.0%(25.6% → 22.6%)가 줄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 학생 보호자의 직업

(단위 : 명(%))

직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문직		37 (8.7)	10 (4.9)	38 (8.5)	8 (5.6)	8 (7.9)	4 (3.9)	19 (8.6)	12 (3.9)	2 (8.0)	59 (5.6)	79 (8.6)	138 (7.0)
전문기술직		23 (5.4)	8 (3.9)	48 (10.8)	9 (6.3)	5 (5.0)	16 (15.7)	19 (8.6)	26 (8.5)	2 (8.0)	88 (8.3)	68 (7.4)	156 (7.9)

10 · 學生生活研究

구분 직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육 체 노 동	10 (2.4)	5 (2.5)	2 (0.4)	4 (2.8)	3 (3.0)	7 (6.9)	20 (9.0)	16 (5.2)	-	54 (5.1)	13 (1.4)	67 (3.4)
경 영 관 리	26 (6.1)	4 (2.0)	25 (5.6)	4 (2.8)	3 (3.0)	12 (11.8)	5 (2.3)	14 (4.6)	1 (4.0)	53 (5.0)	41 (4.5)	94 (4.8)
행 정 관 리	51 (11.9)	31 (15.3)	61 (13.7)	18 (12.7)	12 (11.9)	4 (3.9)	26 (11.8)	22 (7.2)	3 (12.0)	106 (10.0)	122 (13.3)	228 (11.5)
군 인 또 는 찬 경	15 (3.5)	1 (0.5)	10 (2.2)	1 (0.7)	3 (3.0)	-	-	5 (1.6)	-	29 (2.7)	6 (0.7)	35 (1.8)
농 업	83 (19.4)	55 (27.1)	85 (19.1)	39 (27.5)	32 (31.7)	24 (23.5)	34 (15.4)	88 (28.9)	8 (32.0)	229 (21.6)	219 (23.9)	448 (22.6)
축 산 업	-	3 (1.5)	1 (0.2)	-	-	-	3 (1.4)	3 (1.0)	1 (4.0)	6 (0.6)	5 (0.5)	11 (0.6)
어 업	-	1 (0.5)	8 (1.8)	3 (2.1)	2 (2.0)	6 (5.9)	5 (2.3)	7 (2.3)	-	20 (1.9)	12 (1.3)	32 (1.6)
수 산 업	1 (0.2)	1 (0.5)	-	-	-	2 (2.0)	11 (5.0)	-	-	15 (1.4)	-	15 (0.8)
판 서 비 스 매 직	72 (16.9)	33 (16.3)	66 (14.8)	19 (13.4)	13 (12.9)	14 (13.7)	43 (19.5)	48 (15.7)	2 (8.0)	173 (16.3)	137 (14.9)	310 (15.7)
상 업	69 (16.2)	30 (14.8)	57 (12.8)	22 (15.5)	11 (10.9)	7 (6.9)	18 (8.1)	37 (12.1)	4 (16.0)	128 (12.1)	127 (13.8)	255 (12.9)
교 직	24 (5.6)	14 (6.9)	14 (3.1)	6 (4.2)	1 (1.0)	3 (2.9)	10 (4.5)	9 (3.0)	2 (8.0)	32 (3.0)	51 (5.6)	83 (4.2)
무 직	13 (3.0)	5 (2.5)	10 (2.2)	7 (4.9)	3 (3.0)	3 (2.9)	7 (3.2)	18 (5.9)	-	52 (4.9)	14 (1.5)	66 (3.3)
무 응 답	3 (0.7)	2 (1.0)	21 (4.7)	2 (1.4)	5 (5.0)	-	1 (0.5)	6 (1.9)	-	17 (1.6)	23 (2.5)	40 (2.0)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8) 학생의 가족수

본인을 포함한 학생의 총가족수를 알아본 결과, '4인 가족'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 34.8%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5인 가족'이 30.6%로서 전년도 31.8%에 비해 낮고, '6인' 12.9%, '7인'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8인과 9인 등 대가족의 경우도 3.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3.8%에 비해 조금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학생 혼자인 경우는 한명도 없으며, '2인 가족'(학생과 부, 또는 모만 동거)도 0.8%(15명)가 된다.

<표 1-8> 학생의 가족수(본인 포함)

<단위 : 명(%)>

구분 가족수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1명	-	-	-	-	-	-	-	-	-	-	-	-
2명	-	4 (2.0)	-	1 (0.7)	1 (1.0)	-	7 (3.2)	2 (0.6)	-	14 (1.3)	1 (0.1)	15 (0.8)
3명	27 (6.3)	8 (3.9)	19 (4.3)	8 (5.6)	5 (5.0)	6 (5.9)	15 (6.8)	18 (5.8)	2 (8.3)	76 (7.2)	32 (3.5)	108 (5.5)
4명	198 (46.4)	80 (39.4)	159 (35.7)	46 (32.4)	40 (39.6)	47 (46.1)	118 (53.4)	100 (32.2)	6 (24.0)	499 (47.0)	295 (32.2)	794 (40.1)
5명	131 (30.7)	60 (29.6)	154 (34.5)	43 (30.3)	32 (31.7)	32 (31.4)	39 (17.6)	105 (33.8)	10 (40.0)	295 (27.8)	311 (33.9)	606 (30.6)
6명	44 (10.3)	27 (13.3)	81 (18.2)	20 (14.1)	17 (16.8)	12 (11.8)	7 (3.2)	44 (14.1)	4 (16.0)	99 (9.3)	157 (17.1)	256 (12.9)
7명	11 (2.6)	13 (6.4)	21 (4.7)	17 (12.0)	4 (4.0)	1 (1.0)	30 (13.6)	23 (7.4)	2 (8.0)	51 (4.8)	71 (7.7)	122 (6.2)
8명	11 (2.6)	7 (3.4)	11 (2.5)	3 (2.1)	1 (1.0)	4 (3.9)	-	8 (2.6)	-	16 (1.5)	29 (3.2)	45 (2.3)
9명 이상	3 (0.7)	4 (2.0)	1 (0.2)	3 (2.1)	1 (1.0)	-	3 (1.4)	8 (2.6)	-	9 (0.8)	14 (1.5)	23 (1.2)
무응답	2 (0.5)			1 (0.7)			2 (0.9)	3 (1.0)	1 (4.0)	2 (0.2)	7 (0.8)	9 (0.5)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9) 학생 가족의 월수입

가정의 월수입을 보면, '181만원 이상'이 21.4%로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101~120만원'이 14.6%, '81~100만원'이 12.5%, '141~160만원'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80만원 이하'인 가족도 6.9%나 된다. 이러한 경향을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해 보면, 80만원 이하가 11.2% → 6.9%로 4.3% 감소하였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8.3% → 64.7%로 6.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학생 가족의 월수입

〈단위 : 명(%)〉

구분 월수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20만원 이하	6 (1.4)	-	1 (0.2)	2 (1.4)	4 (4.0)	3 (2.9)	1 (0.5)	4 (1.3)	1 (4.0)	12 (1.1)	10 (1.1)	22 (1.1)
21~40만원	-	2 (1.0)	5 (1.1)	-	2 (2.0)	-	-	3 (1.0)	-	10 (0.9)	2 (0.2)	12 (0.6)
41~60만원	-	3 (1.5)	-	7 (4.9)	3 (3.0)	6 (5.9)	2 (0.9)	5 (1.6)	-	20 (1.9)	6 (0.7)	26 (1.3)
61~80만원	34 (8.0)	6 (3.0)	5 (1.1)	5 (3.5)	4 (4.0)	1 (1.0)	12 (5.4)	11 (3.5)	-	39 (3.7)	39 (4.3)	78 (3.9)
81~100만원	59 (13.8)	25 (12.3)	55 (12.3)	14 (9.9)	8 (7.9)	16 (15.7)	26 (11.8)	45 (14.5)	-	160 (15.1)	88 (9.6)	248 (12.5)
101~120만원	58 (13.6)	32 (15.8)	73 (16.4)	15 (10.6)	13 (12.9)	12 (11.8)	35 (15.8)	47 (15.1)	4 (16.0)	173 (16.3)	116 (12.6)	289 (14.6)
121~140만원	21 (4.9)	19 (9.4)	47 (10.5)	16 (11.3)	10 (9.9)	15 (14.7)	27 (12.2)	32 (10.3)	5 (20.0)	84 (7.9)	108 (11.8)	192 (9.7)
141~160만원	33 (7.7)	12 (5.9)	77 (17.3)	15 (10.6)	10 (9.9)	4 (3.9)	27 (12.2)	28 (9.0)	1 (4.0)	112 (10.6)	95 (10.4)	207 (10.5)
161~180만원	54 (12.6)	20 (9.9)	22 (4.9)	13 (9.2)	6 (5.9)	10 (9.8)	22 (10.0)	19 (6.1)	2 (8.0)	74 (7.0)	94 (10.3)	168 (8.5)
181만원 이상	111 (26.0)	46 (22.7)	81 (18.2)	25 (17.6)	25 (24.8)	27 (26.5)	46 (20.8)	53 (17.0)	9 (36.0)	234 (22.1)	189 (20.6)	423 (21.4)
무 응 답	51 (11.9)	38 (18.7)	80 (17.9)	30 (21.1)	16 (15.8)	8 (7.8)	23 (10.4)	64 (20.6)	3 (12.0)	143 (13.5)	170 (18.5)	313 (15.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10) 학생의 가정분위기

학생의 가정분위기를 보면, '화목하다'는 반응이 8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화가 있다'는 반응에도 11.4%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0〉 학생의 가정분위기

〈단위 : 명(%)〉

구분 가정분위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불화가 심하다	1 (0.2)	4 (2.0)	11 (2.5)	3 (2.1)	1 (1.0)	1 (1.0)	2 (0.9)	3 (1.0)	-	19 (1.8)	7 (0.8)	26 (1.3)
약간 불화가 심하다	34 (8.0)	21 (10.3)	40 (9.0)	8 (5.6)	9 (8.9)	7 (6.9)	35 (15.8)	41 (13.2)	5 (20.0)	117 (11.0)	83 (9.1)	200 (10.1)
비교적 화목하다	237 (55.5)	116 (57.1)	300 (67.3)	96 (67.6)	68 (67.3)	79 (77.5)	120 (54.3)	197 (63.3)	13 (52.0)	677 (63.8)	549 (59.9)	1226 (62.0)
매우 화목하다	154 (36.1)	60 (29.6)	95 (21.3)	34 (23.9)	22 (21.8)	14 (13.7)	64 (29.0)	70 (22.5)	6 (24.0)	246 (23.2)	273 (29.8)	519 (26.2)
무응답	1 (0.2)	2 (1.0)		1 (0.7)	1 (1.0)	1 (1.0)			1 (4.0)	2 (0.2)	5 (0.5)	7 (0.4)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 1-11〉과 같이 알아본 결과, '만족하다'는 반응이 77.6%이고, '그저 그렇다' 17.3%, '불만족스럽다' 4.6%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럽다'에 여학생이 80.7%로 남학생의 75.0% 보다 다소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단위 : 명(%)〉

구분 느낌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하다	130 (30.4)	40 (19.7)	104 (23.3)	31 (21.8)	27 (26.7)	19 (18.6)	50 (22.6)	60 (19.3)	4 (16.0)	260 (24.5)	205 (22.4)	465 (23.5)
만족하다	215 (50.4)	105 (51.7)	253 (56.7)	88 (62.0)	56 (55.4)	65 (63.7)	97 (43.9)	176 (56.6)	16 (64.0)	536 (50.5)	535 (58.3)	1071 (54.1)
그저 그렇다	70 (16.4)	42 (20.7)	69 (15.5)	18 (12.7)	14 (13.9)	16 (15.7)	55 (24.9)	57 (18.3)	2 (8.0)	199 (18.8)	144 (15.7)	343 (17.3)

구분 느낌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불만족하다	11 (2.6)	9 (4.4)	20 (4.5)	3 (2.1)	2 (2.0)	2 (2.0)	9 (4.1)	13 (4.2)	2 (8.0)	46 (4.3)	25 (2.7)	71 (3.6)
매우 불만이다	-	4 (2.0)	-	1 (0.7)	2 (2.0)	-	10 (4.5)	2 (0.6)	-	16 (1.5)	3 (0.3)	19 (1.0)
무응답	1 (0.2)	3 (1.5)		1 (0.7)				3 (1.0)	1 (4.0)	4 (0.4)	5 (0.5)	9 (0.5)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

학생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반응이 78.2%, '보통이다'가 19.9%, '관심이 적다'에 1.4%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관심이 크다'에 남학생은 79.0%이나 여학생은 77.3%로 나타나 11)의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관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관심이 크다	217 (50.8)	85 (41.9)	206 (46.2)	67 (47.2)	38 (37.6)	51 (50.5)	112 (50.7)	106 (34.1)	8 (32.0)	440 (41.5)	450 (49.1)	890 (45.0)
약간 관심이 크다	145 (34.0)	60 (29.6)	163 (36.5)	47 (33.1)	31 (30.7)	28 (27.7)	58 (26.2)	116 (37.3)	9 (36.0)	398 (37.5)	259 (28.2)	657 (33.2)
보통이다	63 (14.8)	50 (24.6)	75 (16.8)	26 (18.3)	29 (28.7)	22 (21.8)	43 (19.5)	79 (25.4)	6 (24.0)	202 (19.0)	191 (20.8)	393 (19.9)
관심이 적다	1 (0.2)	5 (2.5)	1 (0.2)	1 (0.7)	3 (3.0)	-	3 (1.4)	8 (2.6)	-	12 (1.1)	10 (1.1)	22 (1.1)
전혀 관심이 없다	-	-	1 (0.2)	-	-	-	3 (1.4)	1 (0.3)	1 (4.0)	5 (0.5)	1 (0.1)	6 (0.3)
무응답	1 (0.2)	3 (1.5)		1 (0.7)		1 (1.0)	2 (0.9)	1 (0.3)	1 (4.0)	4 (0.4)	6 (0.7)	10 (0.5)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대학생활

1)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에서,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경우가 89.1%로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 신입생의 학비조달 방법을 물어본 응답에서 90.8%를 보인데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9.3%(전년도 8.0% 보다 1.3% 높음)로 나타났고, 그 외 '친척', '형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1.7%(전년도 1.2% 보다 0.5% 높음)로 매우 낮게 반응하였다. 비록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지만 아직도 학생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생활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인	51 (11.9)	22 (10.8)	17 (3.8)	5 (3.5)	7 (6.9)	6 (5.9)	17 (7.7)	14 (4.5)	1 (4.0)	102 (9.6)	38 (4.1)	140 (7.1)
보 호 자	371 (86.9)	172 (84.7)	418 (93.7)	127 (89.4)	88 (87.1)	84 (82.4)	192 (86.9)	286 (92.0)	21 (84.0)	901 (84.9)	858 (93.6)	1759 (89.1)
친 척	-	2 (1.0)	-	1 (0.7)	2 (2.0)	-	-	2 (0.6)	1 (4.0)	7 (0.7)	1 (0.1)	8 (0.4)
형 세	-	1 (0.5)	-	1 (0.7)	1 (1.0)	1 (1.0)	1 (0.5)	5 (1.6)	-	6 (0.6)	4 (0.4)	10 (0.5)
조 부 모	2 (0.5)	2 (1.0)	7 (1.6)	1 (0.7)	-	-	1 (0.5)	2 (0.6)	-	14 (1.3)	1 (0.1)	15 (0.8)
교내 장학	2 (0.5)	4 (2.0)	-	4 (2.8)	1 (1.0)	10 (9.8)	6 (2.7)	2 (0.6)	1 (4.0)	20 (1.9)	10 (1.1)	30 (1.5)
교외 장학	-	-	4 (0.9)	2 (1.4)	2 (2.0)	1 (1.0)	4 (1.8)	-	-	11 (1.0)	2 (0.2)	13 (0.7)
부 응 답	1 (0.2)			1 (0.7)					1 (4.0)		3 (0.3)	3 (0.2)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장학금의 필요한 이유

재학 중 장학금이 필요여부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가 46.3%(전년도 48.1%에 비해 다소 감소)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31.1%(전년

도 31.6%), '생활비 충당을 위해' 12.1%(전년도 10.2%), '장학금이 필요 없다'가 8.8%(전년도 8.7%)로 나타나고 있어 재학 중 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 이유가 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등록금 보다는 생활비 충당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필요 없다	38 (8.9)	19 (9.4)	33 (7.4)	10 (7.0)	16 (15.8)	3 (2.9)	31 (14.0)	22 (7.1)	3 (12.0)	102 (9.6)	73 (8.0)	175 (8.8)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	108 (25.3)	64 (31.5)	125 (28.0)	48 (33.8)	33 (32.7)	34 (33.3)	87 (39.4)	112 (36.0)	4 (16.0)	362 (34.1)	253 (27.6)	615 (31.1)
생활비 충당	58 (13.6)	22 (10.8)	79 (17.7)	18 (12.7)	10 (9.9)	13 (12.7)	10 (4.5)	27 (8.7)	3 (12.0)	137 (12.9)	103 (11.2)	240 (12.1)
등록금 충당	221 (51.8)	94 (46.3)	193 (43.3)	64 (45.1)	41 (40.6)	51 (50.0)	93 (42.1)	144 (46.3)	14 (56.3)	447 (42.1)	468 (51.0)	915 (46.3)
무응답	2 (0.5)	4 (2.0)	16 (3.6)	2 (1.4)	1 (1.0)	1 (1.0)		6 (1.9)	1 (4.0)	13 (1.2)	20 (2.2)	33 (1.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재학 중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학생이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정도를 보면, '원한다'가 67.3%(전년도 66.6%에 비해 다소 많게 반응), '절실히 원한다'가 18.3%(전년도 20.1% 보다 적게 나타남)로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85.6%(전년도 86.7%)로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별, 남녀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정도

〈단위 : 명(%)〉

구분 부희망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절실히 원함	69 (16.2)	24 (11.8)	79 (17.7)	22 (15.5)	19 (18.8)	21 (20.6)	69 (31.2)	57 (18.3)	2 (8.0)	203 (19.1)	159 (17.3)	362 (18.3)
원함	309 (72.4)	139 (68.5)	285 (63.9)	92 (64.8)	69 (68.3)	67 (65.7)	132 (59.7)	222 (71.4)	16 (64.0)	734 (69.2)	597 (65.1)	1331 (67.3)

구분 희망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별 관심 없음	26 (6.1)	27 (13.3)	73 (16.4)	21 (14.8)	11 (10.9)	14 (13.7)	16 (7.2)	25 (8.0)	7 (28.0)	100 (9.4)	120 (13.1)	220 (11.1)
생각한 적 없음	22 (5.2)	12 (5.9)	7 (1.6)	5 (3.5)	2 (2.0)	-	2 (0.9)	5 (1.6)	-	16 (1.5)	39 (4.3)	55 (2.8)
무 응 답	1 (0.2)	1 (0.5)	2 (0.4)	2 (1.4)			2 (0.9)	2 (0.6)		8 (0.8)	2 (0.2)	10 (0.5)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돈 마련'이 63.9%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폭넓은 사회생활'에 16.6%, '학비 마련' 12.3%를 나타냈으며,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0.9%(18명)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및 남녀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용돈'이나 '학비마련'은 감소한 반면, '폭넓은 사회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희망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사회생활	89 (20.8)	25 (12.3)	91 (20.4)	20 (14.1)	11 (10.9)	18 (17.6)	38 (17.2)	32 (10.3)	5 (20.0)	196 (18.5)	133 (14.5)	329 (16.6)
용돈 마련	236 (55.3)	132 (65.0)	310 (69.5)	86 (60.6)	66 (65.3)	68 (66.7)	138 (62.4)	217 (69.8)	11 (44.0)	651 (61.4)	613 (66.8)	1264 (63.9)
학비 마련	70 (16.4)	23 (11.3)	30 (6.7)	19 (13.4)	17 (16.8)	8 (7.8)	31 (14.0)	42 (13.5)	4 (16.0)	151 (14.2)	93 (10.1)	244 (12.3)
가족의 생계유지	10 (2.3)	1 (0.5)	-	-	1 (1.0)	1 (1.0)	2 (0.9)	3 (1.0)	-	6 (0.6)	12 (1.3)	18 (0.9)
무 응 답	22 (5.2)	22 (10.8)	15 (3.4)	17 (12.0)	6 (5.9)	7 (6.9)	12 (5.4)	17 (5.5)	5 (20.0)	57 (5.4)	66 (7.2)	123 (6.2)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5) 대학 진학의 목적

학생의 대학 진학 목적을 보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31.3%로 전년도 29.9%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24.9%(전년도 27.8%), '자신이 소질개발을 위해서'가 23.6%(전년도 26.7%)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교하면 감소하였고, 그 외에 '주위 권유', '사회적 지위 획득', '교양습득', '배우자 선택' 등의 목적에도 19.2%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14.7%에 비해 높게 나타내고 있다.

〈표 2-5〉 대학 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분 진학목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75 (17.6)	57 (28.1)	198 (44.4)	44 (31.0)	21 (20.8)	36 (35.3)	85 (38.5)	90 (28.9)	13 (52.0)	389 (36.7)	230 (25.1)	619 (31.3)
교 양 습 득	17 (4.0)	5 (2.5)	3 (0.7)	6 (4.2)	7 (6.9)	5 (4.9)	15 (6.8)	7 (2.3)	-	41 (3.9)	24 (2.6)	65 (3.3)
주위의 권유	54 (12.6)	22 (10.8)	22 (4.9)	16 (11.3)	14 (13.9)	16 (15.7)	6 (2.7)	24 (7.7)	3 (12.0)	81 (7.6)	96 (10.5)	177 (8.9)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8 (1.9)	3 (1.5)	9 (2.0)	-	3 (3.0)	-	11 (5.0)	3 (1.0)	-	24 (2.3)	13 (1.4)	37 (1.9)
사 회 적 지 위 획 득	6 (1.4)	20 (9.9)	35 (7.8)	8 (5.6)	7 (6.9)	4 (3.9)	15 (6.8)	6 (1.9)	-	48 (4.5)	53 (5.8)	101 (5.1)
자 신 의 소 질 개 발	139 (32.6)	40 (19.7)	80 (17.9)	39 (27.5)	23 (22.8)	21 (20.6)	37 (16.7)	86 (27.7)	2 (8.0)	238 (22.4)	229 (25.0)	467 (23.6)
전 문 적 지 식 을 습 득	116 (27.2)	55 (27.1)	99 (22.2)	26 (18.3)	26 (25.7)	19 (18.6)	52 (23.5)	93 (29.9)	6 (24.0)	236 (22.2)	256 (27.9)	492 (24.9)
무 응 답	12 (2.8)	1 (0.5)		3 (2.1)		1 (1.0)		2 (2.6)	1 (4.0)	4 (0.4)	16 (1.7)	20 (1.0)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6)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학생이 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보면, '폭넓은 친구교제' 33.0%(전년도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공공부' 27.6%(전년도 30.4%), '자격시험 준비' 12.8%(전년도 15.4%), '사회활동 참여' 7.9%(전년도 8.3%), '서어클활동' 7.1%(전년도 8.5%), '이성교제' 6.8%(전년도 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은 0.4%(전년도 0.8%)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학생활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폭넓은 친구교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전공공부', '자격시험 준비', '사회활동 참여', '서어클 및 봉사활동' 등에는 다소 관심을 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 : 명(%)〉

구분 학교생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친구교제	113 (26.5)	55 (27.1)	206 (46.2)	44 (31.0)	32 (32.7)	26 (25.5)	67 (30.3)	99 (31.8)	11 (44.0)	349 (33.9)	304 (33.2)	653 (33.0)
이성교제	13 (3.0)	6 (3.0)	22 (4.9)	10 (7.0)	11 (10.9)	9 (8.8)	37 (16.7)	27 (8.7)	-	127 (12.0)	8 (0.9)	135 (6.8)
서어클활동	31 (7.3)	15 (7.4)	10 (2.2)	11 (7.7)	10 (9.9)	7 (6.9)	27 (12.2)	28 (9.0)	1 (4.0)	72 (6.8)	68 (7.4)	140 (7.1)
교양서적 탐독	29 (6.8)	8 (3.9)	-	10 (7.0)	1 (1.0)	7 (6.9)	7 (3.2)	3 (1.0)	-	37 (3.5)	28 (3.1)	65 (3.3)
자격시험 준비	19 (4.4)	34 (16.7)	78 (17.5)	14 (9.9)	14 (13.9)	17 (16.7)	25 (11.3)	53 (17.0)	-	130 (12.3)	124 (13.5)	254 (12.8)
사회활동 참여	25 (5.9)	21 (10.3)	28 (6.3)	18 (12.7)	14 (13.9)	9 (8.8)	23 (10.4)	17 (5.5)	1 (4.0)	81 (7.6)	75 (8.2)	156 (7.9)
전공공부	183 (42.9)	60 (29.6)	101 (22.6)	33 (23.2)	18 (17.8)	27 (26.5)	33 (14.9)	80 (25.7)	10 (40.0)	254 (23.9)	291 (31.7)	545 (27.6)
봉사활동	-	2 (1.0)	1 (0.2)	1 (0.7)	-	-	1 (0.5)	1 (0.3)	1 (4.0)	5 (0.5)	2 (0.2)	7 (0.4)
무응답	14 (3.3)	2 (1.0)		1 (0.7)	1 (1.0)		1 (0.5)	3 (1.0)	1 (4.0)	6 (0.6)	17 (1.9)	23 (1.2)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7) 서어클활동 희망분야

학생이 활동하고 싶은 서어클 분야를 보면, '취미분야'가 55.7%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이는 전년도 47.9%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 '스포츠분야'도 14.1%로서 전년도 18.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학술분야'는 9.8%(전년도 8.4%), '봉사분야' 5.5%(전년도 7.7%)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차이있으나, '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도 7.8%로 전년도 9.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활동하고 싶은 서어클분야

〈단위 : 명(%)〉

구분 희망서어클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학술분야	52 (12.2)	23 (11.3)	36 (8.1)	16 (11.3)	4 (4.0)	15 (14.7)	20 (9.0)	27 (8.7)	-	91 (8.6)	102 (11.1)	193 (9.8)
스포츠분야	27 (6.3)	19 (9.4)	52 (11.7)	24 (16.9)	23 (22.8)	18 (17.6)	43 (19.5)	71 (22.8)	2 (8.0)	191 (18.0)	88 (9.6)	279 (14.1)
취미분야	240 (56.2)	109 (53.7)	277 (62.1)	68 (47.9)	54 (53.5)	58 (56.9)	115 (52.0)	166 (53.4)	15 (60.0)	553 (52.1)	549 (59.9)	1102 (55.7)
종교분야	14 (3.3)	3 (1.5)	3 (0.7)	3 (2.1)	3 (3.0)	-	1 (0.5)	5 (1.6)	-	16 (1.5)	16 (1.7)	32 (1.6)
지역 및 사회문제 분야	21 (4.9)	8 (3.9)	11 (2.5)	5 (3.5)	2 (2.0)	-	-	1 (0.3)	1 (4.0)	29 (2.7)	20 (2.2)	49 (2.5)
봉사분야	19 (4.4)	9 (4.4)	40 (9.0)	9 (6.3)	3 (3.0)	2 (2.0)	1 (0.5)	18 (5.8)	7 (28.0)	35 (3.3)	73 (8.0)	108 (5.5)
체육분야	3 (0.7)	4 (2.0)	-	3 (2.1)	2 (2.0)	1 (1.0)	22 (10.0)	8 (2.6)	-	38 (3.6)	5 (0.5)	43 (2.2)
하고 싶지 않음	49 (11.5)	23 (11.3)	26 (5.8)	11 (7.7)	8 (7.9)	8 (7.8)	17 (7.7)	12 (3.9)	-	100 (9.4)	54 (5.9)	154 (7.8)
무응답	2 (0.5)	5 (2.5)	1 (0.2)	3 (2.1)	2 (2.0)	-	2 (0.9)	3 (1.0)	-	8 (0.8)	10 (1.1)	18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8)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

학생이 입학 후 예상되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 문제'가 35.5%(전년도 3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 공부문제'가 34.5%(전년도 35.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자금 및 숙식문제'가 14.4%(전년도 14.6%), '인간관계'나 '이성문제'가 13.6%(전년도 1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간관리' 및 '공부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 '학자금', '숙식' 및 '이성교제 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 공부'와 '인간관계 문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

〈단위 : 명(%)〉

구분 걱정거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자 금 조 달 문 제	47 (11.0)	20 (9.9)	40 (9.0)	14 (9.9)	17 (16.8)	7 (6.9)	28 (12.7)	40 (12.9)	1 (4.0)	130 (12.3)	84 (9.2)	214 (10.8)
숙 식 문 제	19 (4.4)	8 (3.9)	16 (3.6)	6 (4.2)	-	8 (7.8)	9 (4.1)	6 (1.9)	-	43 (4.1)	29 (3.2)	72 (3.6)
학 교 공 부 분 문 제	164 (38.4)	63 (31.0)	166 (37.2)	40 (28.2)	38 (37.6)	18 (17.6)	76 (34.4)	109 (35.0)	9 (36.0)	308 (29.0)	375 (40.9)	683 (34.5)
시 간 및 생 활 관 리 문 제	138 (32.3)	81 (39.9)	149 (33.4)	60 (42.3)	31 (30.7)	58 (56.9)	74 (33.5)	103 (33.1)	9 (36.0)	424 (40.0)	279 (30.4)	703 (35.5)
이 상 교 세 분 문 제	-	3 (1.5)	7 (1.6)	3 (2.1)	5 (5.0)	1 (1.0)	18 (8.1)	11 (3.5)	1 (4.0)	44 (4.1)	5 (0.5)	49 (2.5)
인 간 관 계 분 문 제	56 (13.1)	23 (11.3)	46 (10.3)	18 (12.7)	9 (8.9)	10 (9.8)	14 (6.3)	39 (12.5)	5 (20.0)	89 (8.4)	131 (14.3)	220 (11.1)
무 응 답	3 (0.7)	5 (2.5)	22 (4.9)	1 (0.7)	1 (1.0)		2 (0.9)	3 (1.0)		23 (2.2)	14 (1.5)	37 (1.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대학선택

1) '제주대'의 이미지

'제주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아름다운 캠퍼스' 43.5%,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23.1%, '장학금 혜택' 12.8%, '좋은 학교시설' 8.1%, '학구적인 분위기' 4.7%, '우수한 교수진' 1.8%의 순으로 전년도 신입생과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를 남녀별로 보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좋은 학교시설', '학구적인 분위기', '우수한 교수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아름다운 캠퍼스',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응답하고 있다.

〈표 3-1〉 제주대학교의 이미지

〈단위 : 명(%)〉

구분 이미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구 적 인 분 위 기	16 (3.7)	13 (6.4)	8 (1.8)	5 (3.5)	10 (9.9)	7 (6.9)	14 (6.3)	14 (4.5)	1 (4.0)	54 (5.1)	34 (3.7)	88 (4.7)

구분 이미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우수한 교수진	10 (2.3)	5 (2.5)	8 (1.8)	1 (0.7)	2 (2.0)	1 (1.0)	3 (1.4)	5 (1.6)	-	21 (2.0)	14 (1.5)	35 (1.8)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 분위기	86 (20.1)	61 (30.0)	100 (22.4)	37 (26.1)	29 (28.7)	18 (17.6)	25 (11.3)	95 (30.5)	5 (20.0)	263 (24.8)	193 (21.0)	456 (23.1)
아름다운 캠퍼스	158 (37.0)	72 (35.5)	245 (54.9)	60 (42.3)	50 (49.5)	40 (39.2)	93 (42.1)	130 (41.8)	12 (48.0)	438 (41.3)	422 (46.0)	860 (43.5)
좋은 학교시설	52 (12.2)	7 (3.4)	17 (3.8)	7 (4.9)	4 (4.0)	12 (11.8)	33 (14.9)	27 (8.7)	2 (8.0)	121 (11.4)	40 (4.4)	161 (8.1)
장학금 혜택	63 (14.8)	21 (10.3)	53 (11.9)	22 (15.5)	3 (3.0)	23 (22.5)	42 (19.0)	23 (7.4)	3 (12.0)	111 (10.5)	142 (15.5)	253 (12.8)
무 응 답	42 (9.8)	24 (11.8)	15 (3.4)	10 (7.0)	3 (3.0)	1 (1.0)	11 (5.0)	17 (5.5)	2 (8.0)	53 (5.0)	72 (7.9)	125 (6.3)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제주대학교에 대한 인지도

본교를 지원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강 알고 지원'한 경우 53.0%(전년도 55.7%)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고 지원'한 경우는 34.5%(전년도 33.5%), '전혀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6.7%(전년도 5.4%), '충분히 알고 지원'한 경우가 5.0%(전년도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대강 알고 지원'한 학생이 감소하고,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증가한 현상은 결국 모르고 지원한 신입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더욱 대학 홍보의 비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원'한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반응하는 반면에,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또는 충분히 알고 지원'한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제주대학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혀 모르고 지원했다	39 (9.1)	8 (3.9)	44 (9.9)	10 (7.0)	4 (4.0)	4 (3.9)	10 (4.5)	11 (3.5)	2 (8.0)	52 (4.9)	80 (8.7)	132 (6.7)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모르고 지원했다	154 (36.1)	70 (34.5)	146 (32.7)	36 (25.4)	42 (41.6)	32 (31.4)	83 (37.6)	104 (33.4)	15 (60.0)	338 (31.9)	344 (37.5)	682 (34.5)
대강 알고 지원했다	193 (45.2)	115 (56.7)	235 (52.7)	82 (57.7)	53 (52.5)	56 (54.9)	123 (55.7)	184 (59.2)	7 (28.0)	620 (58.4)	428 (46.7)	1048 (53.0)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	34 (8.0)	10 (4.9)	13 (2.9)	11 (7.7)	2 (2.0)	10 (9.8)	5 (2.3)	12 (3.9)	1 (4.0)	51 (4.8)	47 (5.1)	98 (5.0)
무 응 답	7 (1.6)		8 (1.8)	3 (2.1)							18 (2.0)	18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제주대학교에 지원시 고려한 주된 요인

본교를 지원할 때 고려한 주된 요인은 '지역적인 면' 41.5%(전년도 36.0%), '합격 가능성' 33.5%(전년도 31.7%), '경제적인 면' 18.6%(전년도 25.0%), '취업 가능성' 5.9%(전년도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합격과 취업 가능성', '경제적인 면'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3.7%, 4.2%, 1.6%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적인 면'에 대하여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9.6%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3-3〉 제주대학교를 지원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고려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역적인 면	198 (46.4)	82 (40.4)	226 (50.7)	43 (30.3)	40 (39.6)	21 (20.6)	84 (38.0)	116 (37.3)	10 (40.0)	393 (37.0)	427 (46.6)	820 (41.5)
경제적인 면	81 (19.0)	39 (19.2)	63 (14.1)	35 (24.6)	18 (17.8)	23 (22.5)	35 (15.8)	68 (21.9)	5 (20.0)	205 (19.3)	162 (17.7)	367 (18.6)
합격 가능성	141 (33.0)	75 (36.9)	132 (29.6)	48 (33.8)	35 (34.7)	55 (53.9)	63 (28.5)	107 (34.4)	6 (24.0)	373 (35.2)	289 (31.5)	662 (33.5)
취업 가능성	3 (0.7)	6 (3.0)	25 (5.6)	14 (9.9)	8 (7.9)	3 (2.9)	35 (15.8)	18 (5.8)	4 (16.0)	83 (7.8)	33 (3.6)	116 (5.9)
무 응 답	4 (0.9)	1 (0.5)		2 (1.4)			4 (1.8)	2 (0.6)		7 (0.7)	6 (0.7)	13 (0.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제주대학교 지원시 정보 수집경로

본교 지원시 정보 수집경로를 보면 '친구·선배'에게서 35.6%(전년도 32.0%)로 가장 많고, '본교 안내 책자' 20.3%(전년도 20.8%), '가족·친척' 16.6%(전년도 18.5%), '교사' 9.4%(전년도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매스컴',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 '입시학원 자료' 등 9.9%(전년도 13.3%)의 수집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금년도 정보 수집경로는 '친구·선배', '안내 책자', '가족·친척',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 '입시학원 자료' 등의 경로에 의한 수집방법이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의 경로(7.5% → 2.5%)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4〉 제주대학교 지원시 정보 수집경로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족, 친척	48 (11.2)	35 (17.2)	56 (12.6)	33 (23.2)	27 (26.7)	12 (11.8)	45 (20.4)	68 (21.9)	5 (20.0)	195 (18.4)	134 (14.6)	329 (16.6)
친구, 선배	158 (37.0)	69 (34.0)	152 (34.1)	58 (40.8)	31 (30.7)	46 (45.1)	83 (37.6)	100 (32.2)	8 (32.0)	352 (33.2)	353 (38.5)	705 (35.6)
교 사	51 (11.9)	13 (6.4)	28 (6.3)	11 (7.7)	16 (15.8)	14 (13.7)	27 (12.2)	25 (8.0)	-	114 (10.7)	71 (7.7)	185 (9.4)
매 스 컴	5 (1.2)	4 (2.0)	20 (4.5)	6 (4.2)	2 (2.0)	3 (2.9)	7 (3.2)	10 (3.2)	-	34 (3.2)	23 (2.5)	57 (2.9)
제주대학교 안 내 책 자	87 (20.4)	48 (23.6)	109 (24.4)	18 (12.7)	11 (10.9)	18 (17.6)	43 (19.5)	55 (17.7)	12 (48.0)	206 (19.4)	195 (21.3)	401 (20.3)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	4 (0.9)	9 (4.4)	12 (2.7)	-	5 (5.0)	4 (3.9)	2 (0.9)	13 (4.2)	-	25 (2.4)	24 (2.6)	49 (2.5)
입시학원 자료	22 (5.2)	7 (3.4)	29 (6.5)	6 (4.2)	3 (3.0)	5 (4.9)	4 (1.8)	13 (4.2)	-	70 (6.6)	19 (2.1)	89 (4.5)
전혀 정보 없었음	52 (12.2)	16 (7.9)	32 (7.2)	6 (4.2)	6 (5.9)	-	10 (4.5)	24 (7.7)	-	54 (5.1)	92 (10.0)	146 (7.4)
무 응 답		2 (1.0)	8 (1.8)	4 (2.8)				3 (1.0)		11 (1.0)	6 (0.7)	17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5) 제주대학에 입학한 자긍심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78.6%(전년도 71.3%)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에는 19.4%(전년도 25.7%) 정도이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

하는 학생도 1.2%(전년도 2.3%)나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별로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자랑스럽다'는 남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서는 덜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학 중 제주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3-5〉 제주대학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

〈단위 : 명(%)〉

구분 자긍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랑스럽다	105 (24.6)	42 (20.7)	48 (10.8)	27 (19.0)	28 (27.7)	21 (20.6)	54 (24.4)	55 (17.7)	3 (12.0)	241 (22.7)	142 (15.5)	383 (19.4)
그저 그렇다	316 (74.0)	154 (75.9)	388 (87.0)	108 (76.1)	73 (72.3)	81 (79.4)	165 (74.7)	249 (80.1)	21 (84.0)	800 (75.4)	755 (82.3)	1555 (78.6)
부끄럽다	3 (0.7)	7 (3.4)	2 (0.4)	3 (2.1)	-	-	2 (0.9)	5 (1.6)	1 (4.0)	11 (1.0)	12 (1.3)	23 (1.2)
무응답	3 (0.7)		8 (1.8)	4 (2.8)				2 (0.6)		9 (0.8)	8 (0.9)	17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08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학부(과) 선택

26) 학부(과)에 지명한 동기

학생이 합격된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나 성적을 고려해서'가 46.4%(전년도 45.7%)로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고, 다음이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에 24.9%(전년도 30.0%), '전혀 원하지 않던 분야로 성적이 모자라서'가 16.7%(전년도 13.8%),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7.4%(전년도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입생이 입학한 학부(과)를 선택한 동기 중 63.1%(전년도 59.5%)로 성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년도 신입생과 비슷하게 반응하였다.

〈표 4-1〉 학부(과)과에 지명한 동기

〈단위 : 명(%)〉

구분 지망동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장 원하던 분야	124 (29.0)	58 (28.6)	117 (26.2)	40 (28.2)	3 (3.0)	17 (16.7)	40 (18.1)	89 (28.6)	5 (20.0)	261 (24.6)	232 (25.3)	493 (24.9)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성적부진	202 (47.3)	90 (44.3)	249 (55.8)	64 (45.1)	32 (31.7)	63 (61.8)	59 (26.7)	146 (46.9)	12 (48.0)	466 (43.9)	451 (49.2)	917 (46.4)

구분 지망동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나 주의압력	4 (0.9)	27 (13.3)	44 (9.9)	28 (19.7)	4 (4.0)	5 (4.9)	7 (3.2)	21 (6.8)	6 (24.0)	64 (6.0)	82 (8.9)	146 (7.4)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격 부진	76 (17.8)	14 (6.9)	20 (4.5)	6 (4.2)	51 (50.5)	15 (14.7)	99 (44.8)	50 (16.1)	-	220 (20.7)	111 (12.1)	331 (16.7)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주위 압력	11 (2.6)	12 (5.9)	16 (3.6)	3 (2.1)	9 (8.9)	1 (1.0)	16 (7.2)	5 (1.6)	2 (8.0)	48 (4.5)	27 (2.9)	75 (3.8)
무 응 답	10 (2.3)	2 (1.0)		1 (0.7)	2 (2.0)	1 (1.0)				2 (0.2)	14 (1.5)	16 (0.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보면, '본인'이 49.6%(전년도 54.3%)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본인의 학부(과) 선택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가 20.6%(전년도 19.0%)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모'나 '선배·친구'의 경우도 28.7%(전년도 26.4%)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결국 자신의 장래를 짚어질 자신이 학부(과)를 선택할 경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보다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별로 보면, '본인'은 공과대생, '교사'는 자연대생, '부모'는 의과대생, '선배나 친구'는 해양대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명(%))

구분 영향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선배, 친구	11 (2.6)	20 (9.9)	54 (12.1)	16 (11.3)	6 (5.9)	13 (12.7)	16 (7.2)	38 (12.2)	-	105 (9.9)	69 (7.5)	174 (8.8)
교 사	128 (30.0)	20 (9.9)	54 (12.1)	17 (12.0)	30 (29.7)	21 (20.6)	88 (39.8)	48 (15.4)	1 (4.0)	245 (23.1)	162 (17.7)	407 (20.6)
부 모	53 (12.4)	67 (33.0)	110 (24.7)	43 (30.3)	35 (34.7)	14 (13.7)	21 (9.5)	40 (12.9)	11 (44.0)	195 (18.4)	199 (21.7)	394 (19.9)
본 인	223 (52.2)	95 (46.8)	228 (51.1)	62 (43.7)	28 (27.7)	53 (52.0)	95 (43.0)	184 (59.2)	13 (52.0)	510 (48.1)	471 (51.4)	981 (49.6)
무 응 답	12 (2.8)	1 (0.5)		4 (2.8)	2 (2.0)	1 (1.0)	1 (0.5)	1 (0.3)		6 (0.6)	16 (1.7)	22 (1.1)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을 보면, '취업전망' 때문이 28.2%(전년도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입학 가능성' 22.9%(전년도 21.5%), '자신의 적성' 19.0%(전년도 22.2%), '학문적 흥미' 17.9%(전년도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취업전망'은 의과대, '입학 가능성'은 농과대, '자신의 적성'은 자연대, '학문적 흥미'는 해양대 신입생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취업전망', '입학 가능성' 및 '적성'은 남학생이, '학문적 흥미' 및 '주위의 압력'은 여학생이 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3〉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단위 : 명(%)〉

구분 선택기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취업전망	32 (7.5)	67 (33.0)	190 (42.6)	57 (40.1)	21 (20.8)	30 (29.4)	44 (19.9)	98 (31.5)	18 (72.0)	324 (30.5)	233 (25.4)	557 (28.2)
사회적 지위획득	3 (0.7)	20 (9.9)	27 (6.1)	3 (2.1)	5 (5.0)	4 (3.9)	4 (1.8)	3 (1.0)	-	43 (4.1)	26 (2.8)	69 (3.5)
학문적 흥미	119 (27.9)	32 (15.8)	60 (13.5)	27 (19.0)	4 (4.0)	29 (28.4)	16 (7.2)	62 (19.9)	5 (20.0)	138 (13.0)	216 (23.6)	354 (17.9)
입학 가능성	143 (33.5)	26 (12.8)	47 (10.5)	9 (6.3)	47 (46.5)	26 (25.5)	89 (40.3)	66 (21.2)	-	263 (24.8)	190 (20.7)	453 (22.9)
적 성	85 (19.9)	39 (19.2)	84 (18.8)	31 (21.8)	8 (7.9)	11 (10.8)	54 (24.4)	62 (19.9)	1 (4.0)	212 (20.0)	163 (17.8)	375 (19.0)
주 위 압 력	43 (10.1)	16 (7.9)	38 (8.5)	12 (8.5)	13 (12.9)	1 (1.0)	5 (2.3)	12 (3.9)	1 (4.0)	62 (5.8)	79 (8.6)	141 (7.1)
무 응 답	2 (0.5)	3 (1.5)		3 (2.1)	3 (3.0)	1 (1.0)	9 (4.1)	8 (2.6)		19 (1.8)	10 (1.1)	29 (1.5)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 수집방법을 보면, '대학의 안내서'가 37.3%(전년도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선배나 친구'가 28.9%(전년도 31.4%), '교사' 19.5%(전년도 16.0%), '잡지나 신문'이 6.5%(전년도 6.6%)로 전년도 신입생의 수집경로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요한

대학 입학정보를 '대학의 안내서'로부터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대학별로 보면 '대학 안내서'는 경상대, '선배나 친구'는 사범대, '교사'는 자연대, '잡지나 신문'은 공과대 신입생들이 가장 큰 경로로 꼽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선배나 친구', '교사', '잡지나 신문'은 남학생이 '대학 안내서'는 여학생이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4〉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단위 : 명(%))

구분 수집경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 사	117 (27.4)	22 (10.8)	46 (10.3)	29 (20.4)	29 (28.7)	28 (27.5)	76 (34.4)	38 (12.2)	1 (4.0)	212 (20.0)	174 (19.0)	386 (19.5)
선배, 친구	86 (20.1)	66 (32.5)	141 (31.6)	56 (39.4)	31 (30.7)	31 (30.4)	56 (25.3)	95 (30.5)	9 (36.0)	310 (29.2)	261 (28.5)	571 (28.9)
잡지, 신문	6 (1.4)	15 (7.4)	42 (9.4)	5 (3.5)	1 (1.0)	9 (8.8)	16 (7.2)	33 (10.6)	2 (8.0)	76 (7.2)	53 (5.8)	129 (6.5)
대학안내서	153 (35.8)	80 (39.4)	195 (43.7)	42 (29.6)	36 (35.6)	33 (32.4)	63 (28.5)	127 (40.8)	9 (36.0)	378 (35.6)	360 (39.3)	738 (37.3)
전공한 사람	51 (11.9)	14 (6.9)	22 (4.9)	4 (2.8)	1 (1.0)	-	9 (4.1)	12 (3.9)	2 (8.0)	70 (6.6)	45 (4.9)	115 (5.8)
무 응 답	14 (3.3)	6 (3.0)		6 (4.2)	3 (3.0)	1 (1.0)	1 (0.5)	6 (1.9)	2 (8.0)	15 (1.4)	24 (2.6)	39 (2.0)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5)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

학생이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44.6%(전년도 42.3%)로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이 '고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 전'이 42.6%(전년도 40.7%), '고교 1~2학년 말' 8.4%(전년도 11.9%), '중학교 또는 그 이전' 3.6%(전년도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일찍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여 선택함으로써 자칫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 보다는 성적이나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학부(과)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자신의 성적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48.2%)이 남학생(41.5%)에 비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학부(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 학부(과) 선택시기

〈단위 : 명(%)〉

구분 선택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 학 원 서 접수기간 중	208 (48.7)	91 (44.8)	179 (40.1)	64 (45.1)	61 (60.4)	39 (38.2)	99 (44.8)	132 (42.4)	9 (36.0)	440 (41.5)	442 (48.2)	882 (44.6)
고교 3년~ 입학원서 접수 전	149 (34.9)	82 (40.4)	226 (50.7)	59 (41.5)	34 (33.7)	61 (59.8)	90 (40.7)	129 (41.5)	13 (52.0)	483 (45.5)	360 (39.3)	843 (42.6)
고교1~2학년말	42 (9.8)	16 (7.9)	37 (8.3)	10 (7.0)	5 (5.0)	1 (1.0)	16 (7.2)	38 (12.2)	2 (8.0)	97 (9.1)	70 (7.6)	167 (8.4)
중 학 교 또는 그이전	26 (6.1)	13 (6.4)	4 (0.9)	5 (3.5)	-	-	14 (6.3)	9 (2.9)	1 (4.0)	32 (3.0)	40 (4.4)	72 (3.6)
무 응 답	2 (0.5)	1 (0.5)		4 (2.8)	1 (1.0)	1 (1.0)	2 (0.9)	3 (1.0)		9 (0.8)	5 (0.5)	14 (0.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6)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

학생이 지원하기 전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정도를 보면, '대강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가 63.0%(전년도 62.1%)에 불과하며,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가 36.2%(전년도 37.6%)로서 상당수의 학생이 지망학부(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알고 있다'가 62.1% → 63.0%, '모른다'가 37.6% → 36.2%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지망학(과)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주 잘 알았음	6 (1.4)	-	9 (2.0)	3 (2.1)	-	1 (1.0)	8 (3.6)	3 (1.0)	-	10 (0.9)	20 (2.2)	30 (1.5)
꽤 알고 있었음	34 (8.0)	17 (8.4)	16 (3.6)	10 (7.0)	-	9 (8.8)	20 (9.0)	16 (5.1)	1 (4.0)	81 (7.6)	42 (4.6)	123 (6.2)
대 강 알고 있었음	239 (56.0)	115 (56.7)	280 (62.8)	82 (57.7)	41 (40.6)	58 (56.9)	103 (46.6)	158 (50.8)	17 (68.0)	605 (57.0)	488 (53.2)	1093 (55.3)
알 지 못하는 편임	94 (22.0)	60 (29.6)	116 (26.0)	41 (28.9)	50 (49.5)	26 (25.5)	72 (32.6)	110 (35.4)	7 (28.0)	296 (27.9)	280 (30.5)	576 (29.1)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물 랐 음	51 (11.9)	9 (4.4)	25 (5.6)	2 (1.4)	9 (8.9)	6 (5.9)	17 (7.7)	22 (7.1)	-	61 (5.7)	80 (8.7)	141 (7.1)
무 응 답	3 (0.7)	2 (1.0)		4 (2.8)	1 (1.0)	2 (2.0)	1 (0.5)	2 (0.6)		8 (0.8)	7 (0.8)	15 (0.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7)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학생들이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을 보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나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87.7%(전년도 90.7%)나 반응하고 있어서 직업과 전공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도 11.4%(전년도 8.4%)나 된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은 의과대, '전공과 관련한 직종'은 법정대, '전공과 무관한 직종'은 농과대 신입생이 다른 대학 신입생에 비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공과 무관한 직종'을, 여학생은 '전공을 살릴 수 있거나 관련한 직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단위 : 명(%)〉

구분 희망 직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공 과 무관한 직종	80 (18.7)	8 (3.9)	13 (2.9)	3 (2.1)	28 (27.7)	7 (6.9)	58 (26.2)	29 (9.3)	-	141 (13.3)	85 (9.3)	226 (11.4)
전 광 과 관련한 직종	123 (28.8)	100 (49.3)	197 (44.2)	67 (47.2)	34 (33.7)	36 (35.3)	47 (21.3)	112 (36.0)	11 (44.0)	388 (36.6)	339 (37.0)	727 (36.8)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222 (52.0)	91 (44.8)	236 (52.9)	69 (48.6)	38 (37.6)	57 (55.9)	113 (51.1)	167 (53.7)	14 (56.0)	520 (49.0)	487 (53.1)	1007 (50.9)
무 응 답	2 (0.5)	4 (2.0)		3 (2.1)	1 (1.0)	2 (2.0)	3 (1.4)	3 (1.0)		12 (1.1)	6 (0.7)	18 (0.9)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8)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인 수학여부

학생이 현재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보면, '끝까지 계속하겠다'가 50.9%(전년도 55.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원하던 학부(과)를 '부전공으로 택해서 해보겠다'가 16.8%(전년도 20.7%)로 나타났으며, '졸업전에 전과해 보겠다' 16.7%(전년도 9.2%),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 5.8%(전년도 5.4%),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공부를 해보겠다' 5.2%(전년도 4.4%), '대학원 진학하여 원하던 전공을 해보겠다' 3.4%(전년도 3.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비록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44.5%(전년도 39.7%)의 학생은 자신이 원하던 전공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 선택이 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여학생이 53.4%(전년도 58.1%)로 남학생의 47.6%(전년도 54.2%) 보다 5.8%(전년도 3.9%) 앞서고 있다.

〈표 4-8〉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인 수학여부

〈단위 : 명(%)〉

구분 수학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끝까지 계속하겠다	150 (35.1)	116 (57.1)	325 (72.9)	97 (68.3)	20 (19.8)	48 (47.1)	60 (27.1)	157 (50.5)	22 (88.0)	505 (47.6)	490 (53.4)	995 (50.3)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함	74 (17.3)	40 (19.7)	61 (13.7)	17 (12.0)	26 (25.7)	14 (13.7)	48 (21.7)	52 (16.7)	-	179 (16.9)	153 (16.7)	332 (16.8)
다시 입시공부	24 (5.6)	17 (8.4)	9(2.0)	10 (7.0)	4 (4.0)	5 (4.9)	20 (9.0)	25 (8.0)	-	86 (8.1)	28 (3.1)	114 (5.8)
졸업전 전과	133 (31.1)	12 (5.9)	29 (6.5)	3 (2.1)	39 (38.6)	19 (18.6)	55 (24.9)	41 (13.2)	-	189 (17.8)	142 (15.5)	331 (16.7)
학사 편입을 통해 전공공부	24 (5.6)	2 (1.0)	9 (2.0)	5 (3.5)	8 (7.9)	5 (4.9)	31 (14.0)	19 (6.1)	-	49 (4.6)	54 (5.9)	103 (5.2)
대학원 진학	10 (2.3)	7 (3.4)	13 (2.9)	6 (4.2)	3 (3.0)	10 (9.8)	4 (1.8)	12 (3.9)	3 (12.0)	38 (3.6)	30 (3.3)	68 (3.4)
무 응 답	12 (2.8)	9 (4.4)		4 (2.8)	1 (1.0)	1 (1.0)	3 (1.4)	5 (1.6)		15 (1.4)	20 (2.2)	35 (1.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5. 교수와의 관계

1) 학생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학생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을 보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40.1%(전년도 39.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가 34.5%(전년도 36.8%)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 12.0%(전년도 11.0%), '인생관에 대한 조언' 9.2%(전년도 8.1%),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2.5%(전년도 2.4%)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비교하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공과대,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가 의과대,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는 자연대, '인생관에 대한 조언'은 인문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농과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1〉 학생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단위 : 명(%)〉

구분 기대분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학문의 지 도	186 (43.6)	86 (42.4)	212 (47.5)	54 (38.0)	21 (20.8)	32 (31.4)	46 (20.8)	151 (48.6)	6 (24.0)	390 (36.8)	404 (44.1)	794 (40.1)
전공 이외 의 의	66 (15.5)	21 (10.3)	26 (5.8)	18 (12.7)	17 (16.8)	11 (10.8)	51 (23.1)	28 (9.0)	-	133 (12.5)	105 (11.5)	238 (12.0)
인 생 관 에 대 한 조 언	56 (13.1)	19 (9.4)	27 (6.1)	15 (10.6)	9 (8.9)	11 (10.8)	20 (9.0)	23 (7.4)	1 (4.0)	108 (10.2)	73 (8.0)	181 (9.2)
사 회 적 인 문 제 에 대 한 논 의	10 (2.3)	9 (4.4)	11 (2.5)	2 (1.4)	8 (7.9)	5 (4.9)	4 (1.8)	1 (0.3)	-	26 (2.5)	24 (2.6)	50 (2.5)
따 뜻 한 인 간 적 인 관 계	103 (24.1)	66 (32.5)	161 (36.1)	49 (34.5)	45 (44.6)	42 (41.2)	97 (43.9)	102 (32.8)	18 (72.0)	382 (36.0)	301 (32.8)	683 (34.5)
인 간 적 인 관 계 를 원 칩 없 음	1 (0.2)	2 (1.0)	1 (0.2)	-	-	-	2 (0.9)	3 (1.0)	-	7 (0.7)	2 (0.2)	9 (0.5)
무 응 답	5 (1.2)		8 (0.8)	4 (2.8)	1 (1.0)	1 (1.0)	1 (0.5)	3 (1.0)		15 (1.4)	8 (0.9)	23 (1.2)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6. 고교생활

1) 과외지도 받은 경험 및 형태

학생이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과외지도를 받았는가를 보면, '과외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가 73.1%(전년도 75.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과외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개인지도' 12.9%(전년도 8.6%), '학원수강'이 9.1%(전년도 11.2%)로 가장 높았고,

'두 가지 형태 이상 과외지도'를 받은 학생은 1.1%(전년도와 같음), '그룹지도' 0.8%(전년도 1.6%)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학원수강' 외의 다른 형태의 과외는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원수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6-1〉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 및 형태

(단위 : 명(%))

과외형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개 인 지 도	102 (23.9)	21 (10.3)	57 (12.8)	19 (13.4)	7 (6.9)	6 (5.9)	21 (9.5)	21 (6.8)	1 (4.0)	117 (11.0)	138 (15.0)	255 (12.9)
그 룹 지 도	2 (0.5)	1 (0.5)	4 (0.9)	-	2 (2.0)	-	1 (0.5)	5 (1.6)	-	8 (0.8)	7 (0.8)	15 (0.8)
학 원 수 강	35 (8.2)	22 (10.8)	59 (13.2)	21 (14.8)	5 (5.0)	7 (6.9)	12 (5.4)	16 (5.1)	3 (12.0)	68 (6.4)	112 (12.2)	180 (9.1)
입 주 과 외	-	1 (0.5)	-	-	-	-	-	-	-	1 (0.1)	-	1 (0.1)
한 적 없 다	267 (62.5)	149 (73.4)	319 (71.5)	96 (67.6)	83 (82.2)	84 (82.4)	180 (81.4)	253 (81.4)	20 (80.0)	836 (78.8)	615 (67.1)	1451 (73.4)
두 형태 의 과 외	12 (2.8)	2 (1.0)	3 (0.7)	1 (0.7)	-	-	-	-	-	3 (0.3)	15 (1.6)	18 (0.9)
세 형태 의 과 외	-	-	-	-	-	-	1 (0.5)	-	-	-	1 (0.1)	1 (0.1)
네 형태 모두	-	-	-	-	-	-	1 (0.5)	-	-	-	1 (0.1)	1 (0.1)
무 응 답	9 (2.1)	7 (3.4)	4 (0.9)	5 (3.5)	4 (4.0)	5 (4.9)	5 (2.3)	16 (5.1)	1 (4.0)	28 (2.6)	28 (3.1)	56 (2.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고교생활의 만족도

학생의 고교생활의 만족 정도를 보면, '만족스러웠다'가 55.6%(전년도 54.4%), '그저 그랬다'가 31.5%(전년도 32.8%), '만족스럽지 못했다'가 12.5%(전년도 12.2%)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에 여학생은 58.6%(전년도 58.9%)이나, 남학생은 65.4%(전년도 51.0%)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만족스러운 고교생활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2〉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했다	54 (12.6)	21 (10.3)	41 (9.2)	13 (9.2)	12 (11.9)	12 (11.8)	31 (14.0)	21 (6.8)	2 (8.0)	134 (12.6)	73 (8.0)	207 (10.5)
만 족 했 다	181 (42.4)	80 (39.4)	233 (52.2)	76 (53.5)	36 (35.6)	44 (43.1)	86 (38.9)	144 (46.3)	12 (48.0)	428 (40.3)	464 (50.6)	892 (45.1)
그저 그랬다	145 (34.0)	72 (35.5)	124 (27.8)	36 (25.4)	37 (36.6)	25 (24.5)	68 (30.8)	107 (34.4)	9 (36.0)	329 (31.0)	294 (32.1)	623 (31.5)
불만족스러웠다	27 (6.3)	18 (8.9)	40 (9.0)	12 (8.5)	10 (9.9)	7 (6.9)	25 (11.3)	27 (8.7)	1 (4.0)	121 (11.4)	46 (5.0)	167 (8.4)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20 (4.7)	9 (4.4)	8 (1.8)	4 (2.8)	6 (5.9)	14 (13.7)	9 (4.1)	11 (3.5)	-	42 (4.0)	39 (4.3)	81 (4.1)
검정고시 출신이다	-	2 (1.0)	-	-	-	-	2 (0.9)	1 (0.3)	1 (4.0)	6 (0.6)	-	6 (0.3)
무 응 답		1 (0.5)		1 (0.7)						1 (0.1)	1 (0.1)	2 (0.1)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7. 대인관계

1) 학생 자신의 대인관계

학생 자신의 대인관계를 보면, '원만하다'는 편이 92.7%(전년도 92.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원만하지 않고 힘들다'는 반응이 6.4%(전년도 7.4%)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원만하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원만하지 못하다'는 반응에는 남학생이 7.4%(전년도 8.7%)로서 여학생의 5.2%(전년도 5.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1〉 학생 자신의 대인관계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	57 (13.3)	30 (14.8)	38 (8.5)	15 (10.6)	12 (11.9)	21 (20.6)	29 (13.1)	32 (10.3)	1 (4.0)	142 (13.4)	93 (10.1)	235 (11.9)
원만한 편	343 (80.3)	160 (78.8)	385 (86.3)	117 (82.4)	78 (77.2)	73 (71.6)	173 (78.3)	247 (79.4)	22 (88.0)	834 (78.6)	764 (83.3)	1598 (80.8)

구분 대인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원만치 않다	22 (5.2)	11 (5.4)	14 (3.1)	7 (4.9)	9 (8.9)	7 (6.9)	13 (5.9)	29 (9.3)	2 (8.0)	70 (6.6)	44 (4.8)	114 (5.8)
매우 힘들	3 (0.7)	2 (1.0)	1 (0.2)	-	1 (1.0)	-	4 (1.8)	1 (0.3)	-	8 (0.8)	4 (0.4)	12 (0.6)
무 응 답	2 (0.5)		8 (1.8)	3 (2.1)	1 (1.0)	1 (1.0)	2 (0.9)	2 (0.6)		7 (0.7)	12 (1.3)	19 (1.0)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이성친구의 유무

신입생들의 이성친구를 알아본 결과,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에 9.8%(전년도 11.5%), '자주 만나지는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다'에 21.9%(전년도 18.0%), '이성친구가 없다'에 67.6%(전년도 69.2%)의 반응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1.7%(전년도 29.5%)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35.0%(전년도 31.6%)로 여학생의 27.7%(전년도 26.9%)보다 이성친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2> 이성친구의 유무

<단위 : 명(%)>

구분 이성친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꾸준히 만나는 친구가 있다	43 (10.1)	14 (6.9)	62 (13.9)	4 (2.8)	13 (12.9)	13 (12.7)	20 (9.0)	23 (7.4)	1 (4.0)	117 (11.0)	76 (8.3)	193 (9.8)
자주 만나지 않으나 있다	101 (23.7)	47 (23.2)	85 (19.1)	32 (22.5)	16 (15.8)	25 (24.5)	69 (31.2)	56 (18.0)	2 (8.0)	255 (24.0)	178 (19.4)	433 (21.9)
없 다	281 (65.8)	139 (68.5)	299 (67.0)	102 (71.8)	72 (71.3)	64 (62.7)	129 (58.4)	230 (74.0)	22 (88.0)	679 (64.0)	659 (71.9)	1338 (67.6)
무 응 답	2 (0.5)	3 (1.5)		4 (2.8)			3 (1.4)	2 (0.6)		10 (0.9)	4 (0.4)	14 (0.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3) 개인문제의 의논대상

학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51.5%(전년도 50.1%)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20.1%(전년도 22.1%), '어머니' 13.5%(전년도 11.7%), '형제 또는 친척' 7.8%(전년도 9.1%), '아버지' 4.4%(전년도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아버지'를 의논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더 많은 반면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22.9%(전년도 27.1%), 여학생이 16.8%(전년도 15.5%)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남학생이 보다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3〉 개인문제 의논대상

〈단위 : 명(%)〉

구분 의논대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26 (6.1)	9 (4.4)	19 (4.3)	3 (2.1)	6 (5.9)	6 (5.9)	9 (4.1)	10 (3.2)	-	57 (5.4)	31 (3.4)	88 (4.4)
어 머 니	68 (15.9)	22 (10.8)	60 (13.5)	17 (12.0)	22 (21.8)	14 (13.7)	32 (14.5)	32 (10.3)	1 (4.0)	116 (10.9)	152 (16.6)	268 (13.5)
친 구	247 (57.8)	93 (45.8)	228 (51.1)	68 (47.9)	41 (40.6)	53 (52.0)	112 (50.7)	154 (49.5)	14 (56.0)	536 (50.5)	474 (51.7)	1010 (51.5)
교 사	10 (2.3)	1 (0.5)	9 (2.0)	1 (0.7)	-	-	-	-	-	10 (0.9)	11 (1.2)	21 (1.1)
선 배	1 (0.2)	2 (1.0)	1 (0.2)	1 (0.7)	-	1 (1.0)	1 (0.5)	3 (1.0)	-	7 (0.7)	3 (0.3)	10 (0.5)
상 담 교 사	11 (2.6)	-	-	1 (0.7)	-	-	-	1 (0.3)	-	12 (1.1)	1 (0.1)	13 (0.7)
형제, 친척	20 (4.7)	22 (10.8)	34 (7.6)	12 (8.5)	9 (8.9)	9 (8.8)	13 (5.9)	33 (10.6)	3 (12.0)	66 (6.2)	89 (9.7)	155 (7.8)
본인 스스로	42 (9.8)	53 (26.1)	93 (20.9)	36 (25.4)	23 (22.8)	18 (17.6)	52 (23.5)	73 (23.5)	7 (28.0)	243 (22.9)	154 (16.8)	397 (20.1)
무 응 답	2 (0.5)	1 (0.5)	2 (0.4)	3 (2.1)		1 (1.0)	2 (0.9)	5 (1.6)		14 (1.3)	2 (0.2)	16 (0.8)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4)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보면, '적성 및 진로문제'가 36.4%(전년도 32.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업문제' 23.2%(전년도 21.7%), '성격문제' 10.8%(전년도 11.3%),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7.1%(전년도 7.1%), '대인관계' 6.3%(전년도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업문제'와 '진로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적성 및 진로문제'와 '학업문제'에서는 여학생이 37.6%(전년도 36.3%)와 24.3%(전년도 22.5%)로 남학생의 35.3%(전년도 30.0%)와 22.1%(전년도 21.1%)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8)의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관계'에서는 남학생이 8.1%(전년도 5.2%)로 여학생의 1.4%(전년도 1.3%)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4〉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단위 : 명(%)〉

구분 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업문제	111 (26.0)	57 (28.1)	89 (20.0)	29 (20.4)	22 (21.8)	30 (29.4)	39 (17.6)	77 (24.8)	4 (16.0)	235 (22.1)	223 (24.3)	458 (23.2)
성격문제	47 (11.0)	14 (6.9)	68 (15.2)	15 (10.6)	7 (6.9)	5 (4.9)	23 (10.4)	31 (10.0)	3 (12.0)	106 (10.0)	107 (11.7)	213 (10.8)
외모문제	13 (3.0)	3 (1.5)	14 (3.1)	4 (2.8)	4 (4.0)	2 (2.0)	16 (7.2)	10 (3.2)	-	36 (3.4)	30 (3.3)	66 (3.3)
이성관계	7 (1.6)	2 (1.0)	9 (2.0)	10 (7.0)	3 (3.0)	4 (3.9)	50 (22.6)	13 (4.2)	1 (4.0)	86 (8.1)	13 (1.4)	99 (5.0)
건강문제	12 (2.8)	3 (1.5)	9 (2.0)	1 (0.7)	7 (6.9)	5 (4.9)	-	7 (2.3)	-	24 (2.3)	20 (2.2)	44 (2.2)
부모와의 관계	2 (0.5)	9 (4.4)	8 (1.8)	7 (4.9)	6 (5.9)	4 (3.9)	7 (3.2)	9 (2.9)	1 (4.0)	29 (2.7)	24 (2.6)	53 (2.7)
종교문제	3 (0.7)	-	1 (0.2)	1 (0.7)	-	-	-	3 (1.0)	-	7 (0.7)	1 (0.1)	8 (0.4)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33 (7.7)	17 (8.4)	36 (8.1)	11 (7.7)	5 (5.0)	1 (1.0)	11 (5.0)	26 (8.4)	-	78 (7.4)	62 (6.8)	140 (7.1)
적성 및 진로문제	172 (40.3)	77 (37.9)	176 (39.5)	52 (36.6)	33 (32.7)	37 (36.3)	61 (27.6)	98 (31.5)	14 (56.0)	375 (35.3)	345 (37.6)	720 (36.4)
성문제	-	-	1 (0.2)	-	1 (1.0)	-	2 (0.9)	4 (1.3)	-	8 (0.8)	-	8 (0.4)
대인관계	18 (4.2)	12 (5.9)	24 (5.4)	9 (6.3)	11 (10.9)	14 (13.7)	8 (3.6)	26 (8.4)	2 (8.0)	53 (5.0)	71 (7.7)	124 (6.3)
무응답	9 (2.1)	9 (4.4)	11 (2.5)	3 (2.1)	2 (2.0)		4 (1.8)	7 (2.3)		24 (2.3)	21 (2.3)	45 (2.3)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1)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학생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및 '사치 및 부정·부패 문제' 21.6%(전년도 19.3%, 25.7%), '빈부의 격차문제' 21.2%(전년도 13.3%), '상호 불신문제' 10.5%(전년도 7.3%)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이를 남녀별,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표 8-1〉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한국의 문제												
경제문제	31 (7.3)	17 (8.4)	74 (16.6)	15 (10.6)	19 (18.8)	23 (22.5)	26 (11.8)	41 (13.2)	2 (8.0)	138 (13.0)	110 (12.0)	248 (12.5)
빈부의 격차문제	130 (30.4)	40 (19.7)	77 (17.3)	27 (19.0)	13 (12.9)	20 (19.6)	58 (26.2)	48 (15.4)	6 (24.0)	219 (20.6)	200 (21.8)	419 (21.2)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86 (20.1)	48 (23.6)	95 (21.3)	24 (16.9)	21 (20.8)	29 (28.4)	33 (14.9)	87 (28.0)	4 (16.0)	250 (23.6)	177 (19.3)	427 (21.6)
청소년 비행문제	5 (1.2)	8 (3.9)	25 (5.6)	7 (4.9)	11 (10.9)	-	4 (1.8)	10 (3.2)	-	46 (4.3)	24 (2.6)	70 (3.5)
사회질서 범죄·교통 문제	42 (9.8)	5 (2.5)	22 (4.9)	9 (6.3)	8 (7.9)	5 (4.9)	32 (14.5)	19 (6.1)	2 (8.0)	68 (6.4)	76 (8.3)	144 (7.3)
사치 및 부정·부패문제	74 (17.3)	64 (31.5)	84 (18.8)	38 (26.8)	21 (20.8)	14 (13.7)	49 (22.2)	76 (24.4)	8 (32.0)	227 (21.4)	201 (21.9)	428 (21.6)
상호 불신문제	52 (12.2)	16 (7.9)	59 (13.2)	19 (13.4)	7 (6.9)	11 (10.8)	17 (7.7)	24 (7.7)	3 (12.0)	92 (8.7)	116 (12.6)	208 (10.5)
무응답	7 (1.6)	5 (2.5)	10 (2.2)	3 (2.1)	1 (1.0)		2 (0.9)	6 (1.9)		21 (2.0)	13 (1.4)	34 (1.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개발문제'에 35.4%(전년도 39.3%), '문화의 낙후성 문제' 32.5%(전년도 28.7%), '환경 보존문제' 8.0%(전년도 9.7%), '교육문제' 5.8%(전년도 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지역개발 문제'에 대하여서는 남·녀 학생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의 낙후성 문제'는 남학생이 23.9%(전년도 21.8%), 여학생이 42.3%(전년도 37.7%)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8-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주도문제	11 (2.6)	2 (1.0)	10 (2.2)	2 (1.4)	4 (4.0)	1 (1.0)	24 (10.9)	7 (2.3)	-	46 (4.3)	15 (1.6)	61 (3.1)
청소년 비행문제	114 (26.7)	79 (38.9)	135 (30.3)	46 (32.4)	43 (42.6)	46 (45.1)	99 (44.8)	131 (42.1)	7 (28.0)	383 (36.1)	317 (34.6)	700 (35.4)
지역개발문제	15 (3.5)	3 (1.5)	11 (2.5)	1 (0.7)	1 (1.0)	4 (3.9)	1 (0.5)	24 (7.7)	-	52 (4.9)	8 (0.9)	60 (3.0)
상공업의 약화	4 (0.9)	1 (0.5)	29 (6.5)	4 (2.8)	-	1 (1.0)	5 (2.3)	5 (1.6)	-	35 (3.3)	14 (1.5)	49 (2.5)
교 통 문 제	177 (41.5)	71 (35.0)	166 (37.2)	56 (39.4)	16 (15.8)	23 (22.5)	40 (18.3)	85 (27.3)	8 (32.0)	254 (23.9)	388 (42.3)	642 (32.5)
문호의 낙후성문제	34 (8.0)	23 (11.3)	14 (3.1)	13 (9.2)	15 (14.9)	7 (6.9)	23 (10.4)	25 (8.0)	5 (20.0)	103 (9.7)	56 (6.1)	159 (8.0)
환경보존문제	45 (10.5)	9 (4.4)	21 (4.7)	5 (3.5)	8 (7.9)	5 (4.9)	9 (4.1)	11 (3.5)	1 (4.0)	68 (6.4)	46 (5.0)	114 (5.8)
교 육 문 제	2 (0.5)	8 (3.9)	14 (3.1)	5 (3.5)	9 (8.9)	2 (2.0)	4 (1.8)	12 (3.9)	1 (4.0)	37 (3.5)	20 (2.2)	57 (2.9)
농 업 문 제	21 (4.9)	5 (2.5)	20 (4.5)	7 (4.9)	5 (5.0)	9 (8.8)	14 (6.3)	6 (1.9)	2 (8.0)	54 (5.1)	35 (3.8)	89 (4.5)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름	4 (0.9)	2 (1.0)	26 (5.8)	3 (2.1)		4 (3.9)	2 (0.9)	5 (1.6)	1 (4.0)	29 (2.7)	18 (2.0)	47 (2.4)
무 응 답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9. 가치관

1)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실력'에 46.4%(전년도 40.4%)로 가장 많은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력' 28.1%(전년도 29.3%), '인간관계' 7.2%(전년도 12.4%), '인격' 6.2%(전년도 6.4%), '학벌' 6.1%(전년도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으며, 남녀별로 보면, '실력'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여학생이 55.4%(전년도 45.9%)로서 남학생의 39.0%(전년도 36.1%) 보다 더 높게 반응을 보였으나, '노력' 과 '인간관계' 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보는 견해는 남·녀 학생이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실력'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공조건												
학 별	43 (10.1)	6 (3.0)	24 (5.4)	7 (4.9)	6 (5.9)	1 (1.0)	10 (4.5)	21 (6.8)	3 (12.0)	73 (6.9)	48 (5.2)	121 (6.1)
가문·배경	16 (3.7)	9 (4.4)	2 (0.4)	4 (2.8)	3 (3.0)	4 (3.9)	14 (6.3)	12 (3.9)	1 (4.0)	37 (3.5)	28 (3.1)	65 (3.3)
실 력	210 (49.2)	98 (48.3)	262 (58.7)	65 (45.8)	27 (26.7)	35 (34.3)	67 (30.3)	143 (46.0)	11 (44.0)	414 (39.0)	504 (55.0)	918 (46.4)
인 격	25 (5.9)	14 (6.9)	30 (6.7)	12 (8.5)	9 (8.9)	9 (8.8)	12 (5.4)	11 (3.5)	-	62 (5.8)	60 (6.5)	122 (6.2)
인 간 관 계	19 (4.4)	18 (8.9)	27 (6.1)	11 (7.7)	9 (8.9)	11 (10.8)	17 (7.7)	27 (8.7)	3 (12.0)	91 (8.6)	51 (5.6)	142 (7.2)
운	1 (0.2)	2 (1.0)	2 (0.4)	-	3 (3.0)	-	-	1 (0.3)	-	4 (0.4)	5 (0.5)	9 (0.5)
노 력	102 (23.9)	51 (25.1)	92 (20.6)	38 (26.8)	40 (39.6)	42 (41.2)	95 (43.0)	88 (28.3)	7 (28.0)	345 (32.5)	210 (22.9)	555 (28.1)
재 력	8 (1.9)	5 (2.5)	5 (1.1)	2 (1.4)	4 (4.0)	-	4 (1.8)	6 (1.9)	-	27 (2.5)	7 (0.8)	34 (1.7)
무 응 답	3 (0.7)		2 (0.4)	3 (2.1)			2 (0.9)	2 (0.6)		8 (0.8)	4 (0.4)	12 (0.6)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10. 학생생활연구소 상담

1)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 희망여부

학생이 개인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상담 받고 싶다'가 55.6%(전년도 54.9%)로 '받고 싶지 않다' 42.7%(전년도 43.4%) 보다 더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그 반면에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1〉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상담희망도												
받고 싶다	271 (63.5)	93 (45.8)	252 (56.5)	80 (56.3)	56 (55.4)	73 (71.6)	89 (40.3)	172 (55.3)	14 (56.0)	573 (54.0)	527 (57.5)	1100 (55.6)

구분 상담희망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지 않다	152 (35.6)	104 (51.2)	180 (40.4)	60 (42.3)	44 (43.6)	29 (28.4)	130 (58.8)	135 (43.4)	11 (44.0)	470 (44.3)	375 (40.9)	845 (42.7)
무 응 답	4 (0.9)	6 (3.0)	14 (3.1)	2 (1.4)	1 (1.0)		2 (0.9)	4 (1.3)		18 (1.7)	15 (1.6)	33 (1.7)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2)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보면, '취업문제'가 25.4%(전년도 25.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진학문제' 22.8%(전년도 18.4%), '학교생활 적응문제' 10.0%(전년도 12.7%),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 7.4%(전년도 8.5%), '해외 유학문제' 5.5%(전년도 6.7%), 성격문제 3.5%(전년도 4.7%)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취업상담은 장학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취업',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에서 남학생이, '진학', '학교생활 적응문제', '해외 유학문제'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여 여학생과 남학생의 상담내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0-2〉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단위 : 명(%)〉

구분 상담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 격 문 제	2 (0.5)	6 (3.0)	15 (3.4)	4 (2.8)	7 (6.9)	6 (5.9)	11 (5.0)	18 (5.8)	-	41 (3.9)	28 (3.1)	69 (3.5)
교우 및 대인 관계 문제	13 (3.0)	19 (9.4)	45 (10.1)	15 (10.6)	9 (8.9)	11 (10.8)	7 (3.2)	24 (7.7)	4 (16.0)	83 (7.8)	64 (7.0)	147 (7.4)
가 정 문 제	-	5 (2.5)	-	1 (0.7)	2 (2.0)	-	7 (3.2)	8 (2.6)	2 (8.0)	14 (1.3)	11 (1.2)	25 (1.3)
학 교 생 활 적응문제	47 (11.0)	25 (12.3)	47 (10.5)	14 (9.9)	10 (9.9)	8 (7.8)	14 (6.3)	27 (8.7)	5 (20.0)	92 (8.7)	105 (11.5)	197 (10.0)
종 교 문 제	9 (2.1)	1 (0.5)	2 (0.4)	1 (0.7)	2 (2.0)	-	1 (0.5)	3 (1.0)	-	16 (1.5)	3 (0.3)	19 (1.0)
이 성 및 성문제	-	2 (1.0)	10 (2.2)	2 (1.4)	1 (1.0)	-	14 (6.3)	7 (2.3)	-	36 (3.4)	-	36 (1.8)

구분 상담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진 학 문 제	113 (26.5)	33 (16.3)	101 (22.6)	33 (23.2)	23 (22.8)	27 (26.5)	62 (28.1)	54 (17.4)	4 (16.0)	210 (19.8)	240 (26.2)	450 (22.8)
해 외 유 학 문 제	55 (12.9)	11 (5.4)	10 (2.2)	10 (7.0)	2 (2.0)	10 (9.8)	1 (0.5)	9 (2.9)	1 (4.0)	35 (3.3)	74 (8.1)	109 (5.5)
취 업 문 제	113 (26.5)	51 (25.1)	107 (24.0)	34 (23.9)	27 (26.7)	20 (19.6)	42 (19.0)	104 (33.4)	4 (16.0)	287 (27.0)	215 (23.4)	502 (25.4)
부 응 답	75 (17.6)	50 (24.6)	109 (24.4)	28 (19.7)	18 (17.8)	20 (19.6)	62 (28.1)	57 (18.3)	5 (20.0)	247 (23.3)	177 (19.3)	424 (21.4)
계	427 (100.0)	203 (100.0)	446 (100.0)	142 (100.0)	101 (100.0)	102 (100.0)	221 (100.0)	311 (100.0)	25 (100.0)	1061 (100.0)	917 (100.0)	1978 (100.0)

IV. 요약 및 제언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제주시가 58.3%로 전체의 약 2/3에 해당되며, 타 시·도는 5.9%로 극히 미약하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주로 본가(68.4%)에서 거주하며, 하숙이나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6.4%나 되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특히 여학생 기숙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자는 대체로 아버지(88.7%)이나, 전년도에 비하면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 조부모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은 고중퇴 이상이 77.6%(전년도 72.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 판매·서비스업과 상업이 주(51.2%)를 이루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입생의 가족수는 4~6인 가족이 70.7%로서 전년도 82.7% 보다 감소하였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이 64.7%로 전년도 58.3%에 비해 증가하였다.

셋째, 신입생의 가정분위기는 대부분 화목하다는 반응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11.4%, 부모에 대해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21.9%,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1.4%)을 나타내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들 신입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또는 생활비의 부담은 주로 보호자가 부담하지만(89.1%), 이는 전년도 90.8%에 비해 약간 낮아지고 있으며, 재학 중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89.5%나 되어 전년도 89.9%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원하고 있어 장학금 확충이 시급하다.

다섯째, 신입생 중 85.6%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용돈 및 학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학당국은 보다 많은 부업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입생의 대학 진학의 목적은 주로 유망한 직업, 전문적 지식과 소질개발(79.8%)을 갖는데 있으며,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친구교제(33.0%), 전공공부(27.6%), 자격시험을 준비(12.8%)하는 것이며, 입학 후 69.8%의 신입생이 취미와 스포츠분야의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걱정거리로서는 학교 공부문제와 시간 및 생활관리 문제가 70.0%나 차지하고 있어서 대학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신입생들이 본교에 대한 이미지는 아름다운 캠퍼스,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장학금 혜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를 지원할 때 사전 인지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원한 학생이 41.2%, 지원시 고려한 요인으로는 지역적인 면이 41.5%이며, 제주대학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은 19.4%에 불과하며,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도 1.2%나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신입생들이 학부(과)를 선택하게 된 주요인은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나 성적을 고려하였고,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49.6%)과, 그 다음으로는 교사(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과)를 선택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취업전망(28.2%)이 가장 높으며, 적성(19.0%)이나 학문적 흥미(17.9%) 보다 입학 가능성(22.9%)을 더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과) 선택의 정보는 대학에서 발간하는 안내서에 의해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으며(37.3%), 선배나 친구(28.9%)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과) 선택의 시기로는 아직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44.6%)에 하고 있으며, 학부(과)에 대해 잘 모르면서 지망(36.2%)하고 있어서 학부(과) 선택에 따른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을 보면 전공을 살릴 수 있거나 관련된 직종(87.7%)에 종사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학생이 50.3%이나 부전공을 택하거나(16.8%), 전과하거나(16.7%),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5.8%) 학생이 많이 있어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신입생들은 교수들에게 가장 전공학문의 지도(40.1%)를 받고 싶어하며,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34.5%)를 갖고 싶어하고, 또한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12.0%)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문적인 지도와 더불어 인생관이나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등도 함께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신입생들은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를 받은 적이 있으며(24.0%), 고교생활의 만족도를 보면 그저 그랬거나 만족하지 못한 학생이 44.0%로 이에 따른 지도가 요망된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며(92.7%), 이들은 이성친구가 있고(31.7%), 남학생(35.0%)이 여학생(27.7%) 보다 더 많으며,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열 한번째, 신입생들이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적성이나 진로(36.4%), 학업(23.2%), 성격이나 가정의 경제적인 면(17.9%)을,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친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51.5%), 본인 스스로(20.1%), 어머니(13.5%), 형제 또는 친척(7.8%), 아버지(4.4%) 순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성인들이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열 두번째, 신입생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와 사치 및 부정부패(21.6%), 빈부의 격차문제(21.2%)를 꼽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의 문제로는 지역개발 문제(35.4%)와 문화의 낙후성(32.5%)을 들고 있어서 제주지역 개발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열 네번째, 신입생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실력(46.4%), 노력(28.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받고 싶어하며(55.6%), 학생들이 받고 싶은 내용은 취업문제(25.4%), 진학문제(22.8%), 학교생활 적응문제(10.0%),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7.4%), 해외 유학문제(5.5%) 등이다. 취업정보실과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斗和, '199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
- 金斗和, '199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6.
- 金斗和, '199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9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8.
- 金斗和, '199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0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
- 金斗和,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1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an in 2000

Kim, Doo-Hwa

By collecting and analyzing basic information about freshmen, we can utilize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made on freshmen every year, as basic data for students guidance and plan of students administration by means of understanding the details such as freshmen's universal trai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value and motives on the choice of their university and major. And the change process of students' characteristics could examine through the research.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on freshmen's trait in 2000, is summerized :

1) While the living area of freshmen is Je-ju City, where this university is located, we should provide the recommendation center to look for a self-boarding or lodging for students from the outside of Je-ju Island, otherwise we must make the environment to receive students through rebuilding and repairing the student dormitory.

2) Since the supporters(mother, brother, sister, grandparents and relatives) have been increased in numbers compared to last year, and their the burden of paying for studying and living has been increased due to growth of supporting the number of family, we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y to make money for studying and living by means of extending the supply scholarship and part time job.

3) While some freshmen's atmosphere in home is good, others - consisting of 11.4 percent - are not. Since there are 4.6 percent of students who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nd whose parents have no interest in students, consisting of 1.4 percent, we should design the program for positively affecting them in home and university.

4) Since freshmen entered the university in order to get a proficient job, develop personal ability and professional knowledge, their favorite activities are to make friends, study their major and prepare for qualifying examination and do club activities

in hobby and sports, and there are expected matters in studying majors, time and life administration, so we should provide and manage various subjects in curriculum to be effective in university life.

5) Freshman have a good image toward this university in order of beautiful scenery of campus, free and open atmosphere and scholarship. There are 41.2 percent of students who applied to this university without being aware of this university minutely. When they applied, they considered the scoring factor which consists of 41.5 percent of students. Since there are 19.4 percent of students who entered the university with self-esteem and 1.2 percent of students with shame, we should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them to go to school with self-esteem.

6) The main reason that freshman chose their major is, mentioned above, somewhat their preferred field but considered scoring and affected by themselves and their teachers. Also main information which they chose their major from their predecessors, friends and especially university pamphlet which also provided important information. As regards the period of choosing major, freshman determined it during the time for application without being aware of their major, so there should be guidance for application in deciding major. It is reported that if there is an occupation that students want to have someday, they want to be engaged in the field that is relevant to major or benefitted from it. Since there are 50.3 percent of students who continued to study their major, 16.8 percent of students who adopted minor major, 16.7 percent of students who changed their major and 5.8 percent of students who intended to transfer with university graduate, there should be systematic guidance about students course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the system of two-more major should be settled down as soon as possible.

7) Students, first of all, want to have humanistic relationship with professors and they want professors to lead their major, so professors should lead not only students and major but also the view of life,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Additionally the system of guidance professor, should be activated.

8) Freshmen have a proper relationship with friends because 31.7 percent of students have girl or boyfriends, so sex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y have right intersexual relationship.

9) Students' serious matters are attitude, course, learning, character or personal

relationship in order to discuss their problems they preferred their friends mostly, rarely preferred their parents or teachers, so adults, who have many experiences, should guide students systematically through periodical psychological attitude examination and appropriately helpful opportunity.

10) Freshmen regard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 as economy, luxury and corruption so they have negative view toward our society. They consider problems in Je-ju Island as community development and falling behind in culture so there should be revolution in thoughts and awakening of social and political leaders. Also we should cope with carefully development in Je-ju Island.

11) Freshmen think of essential conditions for their success in society as their ability and effort and there are 56 percent of students who want to be test consulting program provided in Student Guidance Center. The field that they want to consult is a job, a graduate school, adjustment in schoollif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necessary for these works, Student Guidance Center should absorb the Job Information sector in Scholar Charge office, and should manage its function and work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authority is absolutely required.